홈플러스, 6.5조 챙긴 테스코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8일 화요일 제3296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7일>

코스피
1883.22
(-2.82)

코스닥
648.80
(-1.65)

금리(국고채 3년)
1.65
(-0.02)

환율(원·달러)
1203.30
(+12.00)

네이버·다음 장악 총력전

정부-새누리-재벌, 포털뉴스 규제 연합작전
여권, 총선 앞두고 우호적 논조 만들기 노골화
광고주단체, 제휴언론사 선택권 등 대놓고 간섭

재벌과 정부에 이어 여당까지 협공에 나서면서 네이버와 포털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포털이 인위적으로 새누리당과 정부에 부정적인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있다며 기사의 배치와 노출 매커니즘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포털의 대표를 곧 시작될 국정감사의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어서 포털에게는 직접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 기사 배열에 대해 국가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시정권고할 수 있는 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7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에 나와 포털이 어떤 기사를 플랫폼에 노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행위, 배열행위, 편집행위에 대해 그 과정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내정됐다.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에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보고한 장본인이다. 이 보고서는 포털이 인위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에 비판적인 기사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초 언론중재·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언중위가 포털의 콘텐츠 배열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만든 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 위치나 노출 순서 등에 대해 언중위가 시정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뒤에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버티고 있다. 지난 3일 최고위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 등은 이 의원과 똑같은 말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최고위원은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군부독재시절을 연상케 한다. 포털을 겁박해 편집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야비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나선 것이다. 포털을 위축시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이자 언론장악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반발은 강하지만 실제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늦은 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포털 길들이기는 재벌 대기업이 구상한 로드맵에 따라 착착 진행돼 왔다.

포털 길들이기가 처음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월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사이비언론을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한때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의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이비 언론은 포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광고주협회 쪽의 입김이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며 광고주협회 입김설을 역으로 제기했다. 광고주협회는 재벌의 대변단체다. 재벌이 뒤에 있었다는 이야기다.

지난 7월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현안과 개선방향'이란 이름으로 열린 세미나 이후 나타난 현상은 민 비서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세미나에서 곽혁 광고주협회 상무는 "인터넷 신문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책임에는 등록과 설립절차가 쉽다는 법적 문제와 포털의 뉴스제휴 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말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인터넷신문 요건 강화를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이고, 네이버의 검색알고리즘 변화로 비주류 비판언론의 기사는 독자들이 접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입법권을 휘둘러 이 같은 움직임을 제도화하겠다는 심산이다.

재벌 비판 언론을 고사시키려는 재벌의 꿍꿍이와 내년 총선에 앞서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려는 여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포털 길들이기는 '주마가편'(走馬加鞭)식이 되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신세계 배곧아울렛 부지 헐값 매각 논란 재점화

시흥상인들 반대모임 결성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의 계열사 (주)신세계사이먼이 경기도 시흥시(시장 김윤식)와 손잡고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정왕동 배곧신도시 사업지구 내 부지 14만5418㎡에 조성을 추진중인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위 조감도) 부지에 대한 헐값 매각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시흥시 상인회(회장대행 박춘기)는 7일 배곧신도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반대하는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중 가칭 '시흥시 상인회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곧신도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헐값 매각 논란은 지난해 10월 시흥시가 신세계그룹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부지를 매각한 데서 비롯됐다.

시흥시 상인회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해 10월 1880억원 규모의 아울렛 부지 매각 가격으로 1100억원을 써낸 미래에셋이 아닌 661억6519만원을 써낸 신세계사이먼에 낙찰시켰다.

신세계사이먼에 공급된 필지별 단가는 ㎡당 45만5000원으로 정산됐다. 인근 상업용지의 ㎡당 분양가(240만~460만원)에 비해 최대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는 슈퍼와 편의점, 분식, 음식점 등의 품목에 160개 점포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인회는 점포 입점이 완료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2만7800개 업소당 4인 기준으로 11만1200명의 근로자가 생계위협에 처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인회에 따르면 시흥시는 이 과정에서 상인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매각 절차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향후 발생할 피해 상황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상인들이 시흥시를 방문해 이유를 묻자 시흥시 미래 사업단(단장 이춘복)은 "신세계그룹은 자기자본이고 미래에셋은 외부자본이라 신세계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신세계도 절반은 외부자본이라고 주장했다.

시흥시가 매각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 정보 공개를 하지 않자 상인들은 정보공개 민원 신청을 통해 배곧신도시 프리미엄아울렛 예정부지 매각 과정을 확인했다. 상인들이 확인한 결과 매각 관련 심사 내용이나 사업계획서, 참여의향서 등을 확인했지만 표지만 있고 내용은 없었다.

이처럼 상인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시흥시는 임시방편으로 지난 6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가 구성됐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신세계사이먼 측은 "매각 절차는 시흥시에서 정한 절차에 따랐으며, 지역 상인과의 상생방안 협의는 계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Controversy aroused on giving plutocrats special treatment

'착한 재벌'이라며 갑질 재벌에 특혜

Accompanied growth committee is providing large companies with a lot of benefits by nominating them for their contribution to accompanied growth committee.

According to the 'rate of accompanied growth in 2014' that the committee submitted to the congressman, Park Wan Joo, 19 companies which took up 17% out of the total numbers of the companies that were subject to the assessment, earned the best rates. That 19 companies include Samsung Electronics, LG Electronics, LG display, LG U+, KT, POSCO, KIA motors, and so on.

LG electronics is the one that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found guilty, gave fine, and even reported to the prosecution. KT and LG U+ are not an exception. The rest of them,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icity, LG Display, POSCO, KIA motors, and etc, marked the worst assessment results in the part of fairness in KEJI index that Kyeon Sil Ryon annually conducts. The large companies that earned the best rate and the second best rate whose transparency no one can really verify are enjoying tons of benefits.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가운데)이 2차 협력사 오성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동반성장위원회가 갑질을 일삼는 재벌 대기업을 동반성장 공로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동반성장위가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동반성장지수'에 따르면 평가 대상 기업 112개사 중에서 17%인 19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19개사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KT,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기업으로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까지 고발한 기업이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과징금 처분에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 공정성 부문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다.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재벌 대기업이 누리는 특혜는 막대하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 나선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부동의 1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9% 차이로 제치며 이변을 일으켰다.

▲ 독일은 **난민**을 3만1000명, 프랑스는 2만4000명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의 난민 수용 규모를 12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 삼성전자와 애플, 노키아 등에게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업체들이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조업 중단이나 폐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일본 정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중국 열병식 참관에 대해 "극도로 유감이다. (유엔은 중립적 조직이 아닌 공정·공평한 기구라는 반 총장의 발언은) 뭔가 말장난을 하는 느낌까지 든다"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 **중국**에서 빗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진 60대 노인이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정치

▲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첫 단계부터 불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 국회는 8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자신과 혁신위 활동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비판과 관련해 "언제든지 (안 전 대표를) 만날 용의가 있고, 혁신위 활동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바라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남북 합의와 중국 전승절 외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이라고 말한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에 김 대표와의 맞짱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회

▲ 유치원 **원아 모집**이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아 모집을 다 못하는 유치원이 전체의 절반이 넘지만, 일부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학년도 정원 미달인 유치원은 총 5114곳으로 전체(8823곳)의 58%에 달했다.

▲ 검찰이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관련 의혹으로 1인 시위에 나선 남성도 형사고발했다.

▲ 부패와의 전쟁으로 올해 상반기 입건된 **부정부패** 사범이 8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올 상반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회장을 포함한 143명이 검찰에 입건되고 이 가운데 28명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해변 수색 나선 추자도 주민들 추자도 주민들이 7일 오후 하추자도 해변에서 돌고래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BMW를 대표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인 3시리즈가 다시금 개선됐다. 뉴 3시리즈를 국내 출시한 BMW는 이번 모델이 더 날렵해진 디자인과 운전의 편의성, 효율성을 겸비한 스포츠세단이라고 소개했다.

▲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가전업체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함께 미래 유망 산업으로 손 꼽히는 **스마트홈 서비스**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 2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KT만 다소 느릿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 LG전자가 올해 하반기 유럽 시장에 **LG 스튜디오**를 출시하고 빌트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 사업본부장(사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LG 스튜디오를 유럽으로 확대해 프리미엄 빌트인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흥시**가 지난해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사이먼에 프리미엄 아울렛 예정 부지를 헐값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에 7조6800억원(42억4000만 파운드)에 매각된다.

▲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이 10월과 11월 중국 상해에 자연별곡 2개점을 연이어 오픈하고 중국 외식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랜드는 중국에 이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과 아시아전역으로 매장을 2020년까지 200곳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 분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뉴스테이 1호 '**도화 e편한세상**'의 성공적인 청약 결과가 계약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다. 뉴스테이 1호 단지인 도화가 성공할 경우 추후 뉴스테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동부건설**이 거래 재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다. 심각한 경영난과 주가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회생' 기대감에 날아오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신동빈 증인 채택 두고 정무위마저 '고성'

**야 "롯데서 빼달라 요청" 폭로
사실상 유일한 재벌총수 증인
정무위만 나오기로 여야 가닥
7일 일반 증인 명단에서 빠져**

재벌 총수들이 국정감사 증인 대상에서 속속 빠지는 가운데 가장 증인 채택이 유력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갔다. 신 회장은 관련 상임위에서 너나 없이 모두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의 요구로 정무위 한곳에만 출석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7일 정무위 회의에서는 신 회장이 일반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정 의원은 "지금 정무위에서 국감 증인 채택이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롯데 증인이 빠져있다. 왜 합의가 안 되고 있느냐"며 소리쳤다.

일반 증인 22명 중 윤창훈 코오롱 사장,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등은 포함됐지만 논란이 됐던 롯데그룹 관련자들은 아예 명단에서 빠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일을 두고 여야 이견으로 정회된 7일 정무위 회의실 앞에서 김기식 야당 간사(왼쪽)가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동안 김용태 여당 간사(오른쪽 두 번째), 이재영 의원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 의원은 "롯데로부터 저에게도 증인을 안 하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요청이 왔었다. 저는 국민의 눈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위원장은 "신 회장 채택에 대해 여야 간사 이의가 없다. 다만 시점을 언제하느냐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인을 안 부르려고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며 "(신 회장이) 직접 나오는 것보다는 지배구조 문제를 잘 아는 롯데 사장이라든지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는 것이 먼저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말이 됩니까! 여당 위원장인가"라며 목소리를 더 높였고 정 위원장은 "여당 애들 왜 이런 얘기에 그냥 듣고만 있냐. 야! 어디다 대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라고 맞받아쳐 두 사람 간에 고성이 오갔다.

10일 국감이 시작되지만 거물인 재벌 총수는 누구 한명 증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경제5단체장도 모두 증인에서 제외됐다.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도 증인에서 제외됐다.

정 회장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삼성합병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조 회장은 '땅콩회항' 사건과 관광진흥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 부회장은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반면 최고경영인(CEO)들은 줄줄이 국감장에 선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이해진 네이버 의장, 금융권에선 외환은행 출신의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증언대에 오른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국민안전처 장관, 구조는 뒷전 '유언비어 엄포'

정치권·시민 비난 쏟아져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돌고래호 사고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이 구조에 실패한 상황에서 주무장관이 구조는커녕 사법당국 책임자인양 행세한 셈이다.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생존자 이모씨에 따르면 '해경이라고 적힌 배가 근처에 와서 손도 휘저었지만 불만 비추고 갔다'는 증언이 있는데, 박 장관의 페이스북을 보면 생존자 이씨의 증언을 유언비어로 간주하는 듯한 발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진상이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진상규명부터 먼저 해야지 생존자 증언을 유언비어라고 하는 발언은 매우 경솔하다"고 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민안전처가 사고 수습도 못하면서 유언비어 운운한 것은 적반하장이자 무책임한 태도"라며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엄포만 놓고 있다. 정부의 안전의식에 대한 행태는 개선이 없고 모든 것이 세월호의 재판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부처 이름 그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소방방재청과 해경이 모두 거느리고 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돌고래 출항지 해경출장소, 국민안전처가 '효율' 위해 폐쇄

낚싯배 돌고래호의 출항지였던 해남 남성항의 입출항을 전담하던 출장소가 지난해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인력장비의 효율을 위해서였다.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의 일이다. 출장소가 안전센터로 통폐합되면서 선박의 입출항 관리는 민간이 대행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돌고래호의 출항지였던 해남 남성항을 관할하는 완도 해양경비안전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성항에는 지난해까지 북평출장소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2014년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순찰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땅끝 안전센터로 통폐합됐다.

북평출장소는 순찰형 전환 이전에 해경 2명이 48시간 교대근무를 했다. 그러나 남성항에서 활동하는 선박 총 112척 중 출항신고를 전화로 할 수 있는 5t 미만 선박이 105척이었고 낚시어선(5척)은 V-PASS 장비가 설치, 출항하는 경우 센터에 출항신고가 바로 접수처리 돼 장비와 인력의 효율성 측면에서 안전센터로의 통폐합이 결정된 것이다.

한편 완도 해양경비안전서 관할에는 총 320여개의 항이 있는데 이중 입출항을 민간이 대행하는 항은 남성항을 포함해 10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현장의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현장인력과 장비확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민안전처 본부 덩치만 커진 꼴"이라고 지적하며 "소방·해경의 해체와 국민안전처의 신설 이후 모습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미 대선 '샌더스' 이변

민주당 '부동의 1위' 힐러리 제쳐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 나선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부동의 1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9% 차이로 제치며 이변을 일으켰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돌풍'이 불었다면 민주당에서는 '샌더스 돌풍'이 불어 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샌더스 상원의원은 NBC 뉴스와 마리스트 여론조사기관이 함께 실시해 이날 발표한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9%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샌더스 의원은 41%의 지지율을 얻어 지난 7월 조사 때보다 지지율이 19%포인트나 껑충 뛴 반면, 클린턴 전 장관은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진 32%의 지지율에 그쳤다.

샌더스 의원은 미국 정가에서는 극소수인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가다. 무소속으로 애초 민주당에 연고도 없다. 진보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아웃사이더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대세로 통하는 클린턴 전 장관은 비교 자체가 어려운 정치인이다. 최근 민주당원들이 좌파로 기울면서 그의 위상이 급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대학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돌풍의 주인공인 샌더스 의원이 마침내 앞서게 됐다. 현재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인해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여러 의혹들에 직면해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여전히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편 아직도 대선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조 바이든 부통령은 뉴햄프셔 여론조사에서 12%,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는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이오와주에서 29%, 뉴햄프셔주에서 28%의 지지율로 모두 선두를 지켰다. /송시우 기자 swsong@

성폭행 혐의 '심학봉 징계' 시작부터 불발

與 "본인 해명 들어야" 野 "지연작전 쓰는 것"

국정감사 등 일정 빽빽 총선까지 지연 가능성

지난달 7일 새누리당 여성의원 모임인 '새누리20'의 문정림(왼쪽부터), 이자스민, 황인자, 민현주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성추문으로 물의를 빚은 심학봉 의원과 관련, 국회와 당차원의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첫 단계부터 불발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 차로 1시간 여만에 종결됐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불발 이유에 대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한번 만에 회의해서 처리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인 의견을 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로 토론하다가 결론을 못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징계안에는 성폭행범으로 규정돼 있는데 자문위에서는 성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설명은 달랐다. 일단 회의를 미루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쫓겨 사실상 19대 국회 임기말까지 심 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이 우리 소위에서 벌어졌다.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이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새누리 세 의원들이 오늘 처리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심 의원 징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이 제명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본인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워 소명하지 않은 것인데 소명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결국 심 의원에 대해 새누리 차원의 감싸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이상 자기 당 사람 감싸기를 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본인이 직접 소명을 안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나오는지 아닌지 다시 물어서 9월 중에 윤리위를 다시 열자는 것이다. 국정감사 끝나고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성폭행 문제는 무혐의라고 주장하니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여기서 처리 안 되면 내년 4월 (20대 총선)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헌정 사상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홍 의원은 "당 차원 이야기가 아니다. (심 의원은) 탈당한 의원이다. 이 부분은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절차가 너무 졸속으로 되는 것 아니냐며 한 번 더 회의하자는 입장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계파 밥그릇 반드시 깨뜨려야"

새정치 혁신위 공천룰 발표 내년 총선 국민공천단 도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비롯해 비주류의 강력한 비판을 놓고 '계파 밥그릇'을 위한 비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곤(사진) 혁신위원장은 7일 10차 혁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혁신위에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밥그릇은 마땅히 깨져야 하고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 계파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다. 조각난 계파들의 날선 싸움에 민생은 소외됐고, 혁신위원들은 계파주의와 기득권의 척결 없이 당을 바로 세울 수 없고 당이 바로 서지 않고 국민을 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당은 변화된 모습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계파주의와 기득권은 지금도 우리당의 목을 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혁신위는 10차 혁신안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공천단을 도입하고, 1차경선 1·2위를 대상으로 경선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신인에게는 득표수의 10%를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여성·장애인에게도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보다 5% 높은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는 나이대별로 15~25%에서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4분의3 이상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당선우선권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시 경선을 의무화하고, 정치 신인 우선 추천 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민생복지전문가 우선공천, 당선권 후보의 3분의 1 이상에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 복지전문가, 덕망있는 현장 활동가를 공천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하기로 했다. /송병형 기자

'쇠파이프' 막말 이용득, 김무성에 맞짱토론 제안

새누리당 '사퇴' 재촉구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이라고 말한 이용득(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에 김 대표와의 맞짱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CNN 보도중에 최근 6년 간 2009년 쌍용자동차 노사분규 등 외에는 보도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자 쇠파이프 때문에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안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김 대표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제가 사퇴하라는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당이냐"고 따졌다.

이어 "노동자를 잘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될 말이냐. (김 대표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재벌들에게는 무엇을 했냐. 아무 것도 한 게 없지 않으냐"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 전담만 요구하는 그런 행위, 본인이 재벌 아들이라서 티내는 것이냐. 사회주역인 노동자에게 그러지 말고 거짓자료를 내면서 함부로 하지 말고 필요하면 저와 맞짱토론을 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이 최고위원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혁신 행보를 보이며 화합과 신뢰 정치 회복에 노력하는 이 때에 찬물을 끼얹는 언사다. 야당 지도부는 당내 화합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이런 언행에 대해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朴 대통령, 9개월 만에 50%대 지지율

中 전승절 참석 효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9월 첫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32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50.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셋째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효과로 50.0%를 기록한 이후 9개월여 만에 50%에 다시 진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포인트 하락한 44.0%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45% 선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과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50대 및 6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8월 넷째 주 8·25 남북합의 영향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중반까지는 소폭 하락했지만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당일인 3일부터 이틀간 6.1%포인트가 올랐다. 특히 지난 4일에는 53.8%까지 상승하며 일간 기준으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과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의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로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이 18.5%, 자동응답 방식이 4.4%다. /송병형 기자

개성공단서 미승인 사업 벌인 간 큰 기업인

적산업체 D사 대표 등 기소
北 근로자들에 업무 지시
설계도면 447건 무단반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정부 미승인 업무를 시키고 관련자료 등을 무단 반출한 기업인들이 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적산업체 D사 대표 김모(53)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S사의 대표 유모(57)씨와 기획관리실장 이모(55)씨, 개성공단 현지법인 G사 법인장 곽모(55)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20여명에게 설계도면을 이용해 공사 수량과 비용을 계산해 견적을 내는 적산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당초 정부로부터 '반도체 부품, 유공압 패킹, 전자부품 제조업' 분야 협력사업을 승인받아 2004년 12월 현지법인 G사를 세웠다. 그러나 D사와 적산업무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북한근로자들에게 승인받지 않은 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개성공단에 있는 작업용 서버에 '성남시 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 '우이동 콘도미니엄 개발사업' 등 447개 시설의 설계도면 파일을 저장해놓고 작업을 시킨 뒤 결과값을 남한으로 가져왔다.

남북교류협력법상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은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 반출·반입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들이 무단 반출한 설계도면 등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통해 북한에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만명 학부모선언 기자회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소속 회원들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만명 학부모선언 기자회견'에서 한국사 국정화를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조양호 7시간 재소환 조사

문희상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청탁으로 그의 처남을 취업시켜준 의혹을 받는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재소환돼 7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3시쯤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조사 때 고령의 조 회장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고 출장이 있어서 다녀와서 조사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이 요청을 받아들여 재조사했다"고 말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조 회장은 이달 3일 출국, 이튿날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 휴전재단(IOTF) 집행위원에 선임됐다.

앞서 조 회장은 고교 선배인 문 의원의 부탁으로 2004년 그의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키고는 2012년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74만7000 달러(약 8억원)의 보수를 챙기게 한 의혹을 받았다.

조 회장은 지금까지 한진그룹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의혹을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조만간 문 의원의 소환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미란 기자

중·고생 6000여명 학업부담에 학교 관둬

지난해 학업중단 현황
초·중·고 총 5만1906명
전년보다 8662명 줄어

중고생 6000여명이 학업부담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학업중단 현황(4월 1일 기준)' 결과 지난해 초·중·고교 재학생 628만5792명 가운데 5만1906명(0.83%)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질병, 해외출국 등을 제외한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만8502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45%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2만249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이 5476명, 초등학생이 2777명으로 집계됐다.

부적응 사유에는 '학업관련'이 25.3%를 차지했다.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중 5232명(25.9%)이, 중학생 중 1264명(23.1%)이 각각 '학업관련' 사유로 파악됐다. 이는 중고생 중 하루 18명이 학업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학업을 그만두는 셈이다.

초등학교는 학업부담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34명이다.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입시부담 등 성적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대인관계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중학교 66명, 고등학교 240명이고 학교규칙 부적응은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265명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2777명 가운데 1507명(54.3%)이 정규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찾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초·중·고교의 전체 학업중단 학생은 2013년 6만568명에서 8662명 줄었다.

학업중단율은 2011년 1.06%에서 2012년 1.01%, 2013년 0.93%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2013년 34만4429명과 비교해 5927명(17.2%) 줄었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율이 떨어지는 것은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등 각종 정책과 학교 현장의 노력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학업중단 학생의 감소는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 작년 초·중·고 재학생은 2013년보다 20만명 정도 줄었다.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학생이 대량으로 발생한 학교도 줄고 있다.

지난해 20명 이상 나온 고등학교는 222개교로 2013년 332개교보다 110개교 줄었다. 50명 이상 발생한 고등학교도 27개교로 1년간 12개교 감소했다.

시·도교육청별 부적응 중단 학생의 감소율은 울산이 전년대비 36.6%(297명)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제주 22.5%(94명), 인천 22.3%(418명), 강원 18.1%(271명) 등의 순이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학업중단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업중단 원인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기업비리 혐의' 이재현, 10일 최종판결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사진) CJ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최종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 15분 선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는 603억원 횡령 혐의는 물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 회장은 작년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21일까지로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돌고래호 전복, 상황 접수만 23분 소요

초기 대응 헛점 드러나 1시간내 출동 목표 무색

낚싯배 돌고래호 사고 당시 초기 구조활동이 원활치 않았던 것은 당국의 사고대비 태세와 초기 대응의 일부 문제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7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발표 내용을 놓고 보면 돌고래호와 함께 뱃길에 오른 돌고래1호 선장의 5일 오후 8시40분 신고가 제주해경안전본부 상황실로 전달되기까지 23분이 걸렸다.

상황 접수에만 23분이 소요된 것은 '해상 어디서나 신고 후 1시간 내 출동'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안전처의 목표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전복된 돌고래호. /연합뉴스

박인용 장관은 6일 제주해경안전본부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8시40분 추자 안전센터에 최초 (사고)신고가 되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해경 상황실에 9시3분쯤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추자안전센터 직원이 신고를 받은 후 전화로 돌고래호로 연락을 시도하고, 또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돌고래호의 위치가 파악되는지 확인을 한 후 상황실로 보고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안전처는 파악하고 있다. 즉 통신두절이나 실종이 맞는지 확인을 거쳐 보고하는 데까지 23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한 안전처 관계자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치(대응)와 함께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전센터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조치 후 보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확인된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추자안전센터에서 우선 신고를 전달하고 확인 작업과 함께 출동준비를 했더라면 초기대응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박인용 장관은 취임 후 신속한 상황관리를 유독 강조하면서, 초기상황전파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최초신고와 상황실 전파까지 23분이나 걸렸다.

안전처 관계자는 "신고 후 초기 대응절차를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돌고래호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신고 전까지 전혀 감지되지 않았던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보면 배가 전복된 후 선장 김씨는 승객들에게 "배가 항해를 하면 어떤 무선통신이 해경과 연결돼 있어 해경이 반드시 구조하러 온다. 해경이 금방 올 거다"라며 모두를 안심시켰다.

이는 선장 김씨가 사고 직후 배에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의 조난신고버튼을 눌렀거나, 누르지 않았다고 해도 배의 V-PASS가 끊겼으니 당국이 이를 감지하고 곧 수색에 나서리라고 믿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돌고래호의 V-PASS가 5일 오후 7시 38~40분에 끊겼는데도 돌고래1호 선장이 추자안전센터로 신고를 하기까지 VTS나 해경안전본부는 사고 가능성을 포착하지 못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돌고래호는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V-PASS가 잡혀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신호가 사라진 후 조치가 없었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박지원 사건에 주심 재배당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서 집유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을 3부에서 1부로 재배당하고 주심을 김용덕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3부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속해있는데, 권 대법관이 지난해 9월 취임 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2011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4년3개월이나 지낼 만큼 법리와 재판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주심이었던 이상훈 대법관 등과 함께 9억원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2008~2011년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실명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유선준 기자

쉼없이 진행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이뤄진 7일 서울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 본사 생사확인 추진센터에서 직원들이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결사' 이상득 겨냥 포스코 수사

檢, 뒤늦게 중심부 겨냥

포스코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달 중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0·사진) 전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동력을 잃고 좌초하던 수사의 화살이 중심부를 겨냥, 전 정권의 실세들을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달 중순에서 말사이 이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이 포스코 하청업체인 티엠테크의 수상한 비

자금 정황을 포착한 데 이어 이 업체의 실소유주인 박모씨가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동력을 찾아가고 있다.

/연미란 기자

'아동학대' 어린이집, 국가 '평가인증' 취소 적법

法 "보육서비스 수준 평가 시 결정적 요소"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국가 '평가인증'을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보육환경이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곳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평가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씨의 어린이집에 일하던 보육교사 2명은 지난해 12월 '아동을 발로 차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2014년 6월부터 한 달여간 신체·정신적 학대를 22회 했다'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신씨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두 보육교사는 올해 6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신씨는 소송을 내고 "해당 교사들의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행위"라며 "학대의 정도가 가벼운 만큼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신씨는 또 "평가인증 취소는 보육교사의 행위로 아무 잘못이 없는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아동, 보호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며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의 신체·정신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정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때 결정적 요소"라며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취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평가인증이 취소된다 해도 지원이 중단되는 데 그칠 뿐 폐쇄, 과징금, 형사처벌 등 직접 제재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육아동이나 보호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동부건설株, 이틀째 상한가… 매각 '청신호'

'회생 기대감' 주가상승 견인 인수합병 긍정적 효과 기대

동부건설이 거래 재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다.

심각한 경영난과 주가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회생' 기대감에 날아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동부건설은 전일 대비 29.51%(2780원) 오른 1만2200원에 장을 마쳤다.

동부건설은 감자 후 변경상장 첫날인 지난 4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시 동부건설 주가는 10대1 감자 원칙에 따라 주당 483원이던 것이 483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기준가 범위인 50~150% 중 상한선인 150% 오른 725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게다가 상한가까지 겹쳐 첫날 종가는 9420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건설은 오는 11일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병순 대표는 이번 주총에서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올해 안에 매각을 끝내 회생하겠다는 각오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공개입찰방식의 기업 매각을 허가 받고 지난달 10일 매각 공고를 냈다. 내달 중으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와 예비심사,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감자 이후 주당 순자산가치가 상승한 것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현재 인수합병(M&A)을 위한 예비입찰 중으로, 주가 상승이 인수합병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동부건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동부건설은 지난 2월에 자본금의 79.8%가 잠식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8800억원으로 전년(1조9977억원) 대비 무려 55.9%나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551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이익도 2111억원 손실로 전년(1781억원)에 이어 적자를 이어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동부건설의 주가도 폭락했다. 지난해 동부건설 주가는 연초 2만7600원에서 연말 1만50원까지 63.6%나 떨어졌다.

동부건설은 지난 2월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90거래일 중 61거래일 동안 액면가(5000원)의 20%를 밑돌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것이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90일간 주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이에 동부건설은 지난 6월 거래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7월 13일 상장유지가 결정됐다.

이런 결정에는 동부건설의 주식 감자 결정이 큰 역할을 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대주주는 250대 1, 일반주주는 10대 1의 감자를 실행했다.

주식거래가 정상화되면서 동부건설의 매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M&A 시장에서 상장 프리미엄이 큰 데다 주가가 다시 오르면 시가총액이 상승에 따른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M&A 성사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해 한 동안은 상승 흐름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미래에셋證 '해외주식 하하호호 이벤트' 진행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하하호호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미래에셋증권의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3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미래에셋증권 HTS나 MTS로 상해A, 홍콩, 미국, 일본 주식을 거래하면 매매수수료가 0.09%다.

또 전월 기준 상해A, 홍콩 주식을 5000만원 이상 미국, 일본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매매한 경우 매월 국가별 선착순 300명의 고객에게 익월 한 달간 해당 국가 주식의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제공한다.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에 한한다.

해외주식을 처음 거래하거나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의 경우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해외주식 첫 거래 시 2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만일 30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일인당 한 번만 제공된다.

유지헌 증권영업팀 이사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2% 수준에 불과한 국내 증시를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이벤트가 여러 국가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기관투자가 대상 '인도 투자전략 세미나' 연다

대신증권이 국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인도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신증권은 오는 1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인도 현지 파트너사인 IIFL(India Infoline)의 리서치헤드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에 신청한 기관투자가 150명을 대상으로 3시30분부터 진행되며 동시통역도 제공된다.

장준필 글로벌영업부장은 "세미나를 통해 Post 중국, 또는 글로벌자산 배분의한 축으로서의 인도시장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배 기자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 전년比 80% 증가

코스닥시장은 134% 상승

【시장별 상장주식회전율 현황】

시장구분	2013년	2014년		2015.9.2 기준 (연초 ~ 9.2)	전년 동기대비
		연초 ~ 9.2	전체		
유가증권	237.44 %	123.47 %	200.54 %	201.44 %	77.97 %p
코스닥	447.23 %	251.75 %	389.94 %	385.71 %	133.96 %p

/자료=한국거래소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회전율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올해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은 201.44%로 지난해보다 77.98% 상승했다. 상장주식 주당 약 2번의 거래가 이뤄진 것을 의미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회전율은 384.71%를 기록해 전년보다 133.97% 급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회전율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 2013년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장주식 회전율이 500% 이상의 종목 성장이 두드러진다. 코스피는 58개 종목, 코스닥은 196종목으로 전년 대비 각각 27종목, 86종목이 늘었다.

반면 회전율 50% 미만은 코스피시장 183종목, 코스닥시장 74종목으로 전년보다 각각 110종목, 99종목이 줄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코아스가 2563.63%의 회전율로 가장 많이 거래됐다. 슈넬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쌍방울 등도 회전율 200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가스(1%), 한국유리(4.92%), 부국증권(5.9%) 등은 회전율 하위사에 랭크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케이디건설, 제일바이오, 내츄럴엔도텍, 위노바, 파루, 이스트아시아홀딩스 등이 2000%대 회전율을 보였다. 반면 KNN(4.38%), 에이스침대(6.84%), 티비씨(7.96%) 등은 낮은 회전율을 기록했다.

한편 상장주식 회전율은 일정기간의 거래량을 당해기간 중의 평균 상장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주식의 유동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시점이 다른 거래량을 똑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표다.

/김보배 기자 bobae@

NH투자증권-서울대 '100세시대 인생대학' 수강생 모집

행복한 인생 후반 준비 프로그램… 최고 멘토로 구성

NH투자증권은 7일부터 '100세시대 인생대학' 7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00세시대 인생대학'은 은퇴설계 분야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한 은퇴 이후 행복한 인생 후반전 준비 프로그램이다.

강의는 한경혜 서울대학교 주임교수를 비롯해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교수 등 서울대 교수들과 대한민국 최고 멘토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서울대 캠퍼스투어 및 농촌 체험 행사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으며 원하는 수강생들은 일대일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가을 저녁 캠퍼스의 낭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번 '100세시대 인생대학'은 다음달 5일 개강해 11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반까지 6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50~65세의 NH투자증권 일정 등급 이상 고객 또는 연금저축, IRP 가입 고객 대상이며 희망하는 고객은 자산관리 담당 직원 또는 고객지원부(02-1544-0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00세시대 인생대학' 관련 자세한 내용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보험 불완전판매 연간 4만여건

TM·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서 기승 "당국, 철저한 관리·감독 나서야"

보험상품을 텔레마케팅(TM)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간 4만여건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완전 판매가 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보험사에 대한 꼼꼼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비대면 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는 12만4206건이다.

비대면채널은 보험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지 않고 TM이나 홈쇼핑, 다이렉트(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완전판매는 2012년에 4만8508건에서 2013년 3만8187건, 2014년 3만751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 판매 건 중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다.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TM 판매가 전체 판매 건수 중 1.42%로 홈쇼핑(1.27%)이나 다이렉트(1.11%) 채널보다 크다.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다이렉트가 1.45%로 가장 높고 텔레마케팅(0.81%), 홈쇼핑(0.79%)의 순이다.

불완전 판매 채널별 비율은 생명보험사 중 흥국생명이 2.85%로 가장 높고 DGB(1.61%), 동양(1.57%), 신한(1.51%)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MG손보(5.49%), 현대해상(1.69%), KB손보(1.35%), 롯데손보(1.00%)가 뒤를 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비대면 보험판매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늘고 있다"며 "당국은 판매 채널이나 금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익 기자 jikoo8598@metroseoul.co.kr

삼성생명

'생활습관병' 종합건강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생활습관병'에 대한 입원과 수술 등을 종합보장하는 '삼성생명 생활습관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습관병'은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는 각종 질병이다.

'삼성생명 생활습관건강보험'은 이렇게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긴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을 기본으로 보장한다.

또 중증생활습관병보장특약과 소액질병진단특약, 실손의료비 보장 특약 등 총 18종의 특약을 활용하면 생활습관병의 진단과 입원, 수술 등 전체 치료과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이다. 기본 보장 기간은 15년이지만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자익 기자

신한은행, 내년부터 '차등형 임금피크제' 도입

신규직원 채용, 재원 사용할 것

신한은행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지점장 이상의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역량과 직무경험,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나이가 되더라도 임금삭감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는 우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인사철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신한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까지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대신 선택적으로 시간제 관리 전담 계약직으로 재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오른쪽)과 유주선 신한은행 노조 위원장이 7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합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되면 3년간 추가 고용이 보장된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과 임금피크율은 현재 진행 중인 산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한 재원을 신규 직원 채용의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제주은행도 조만간 임금피크제 도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규채용 확대와 경영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한은행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 SC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에 영향은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들은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노사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조만간 임금피크제 도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자익 기자

금감원, 리스차 중도해지 수수료 부담 줄인다

자동차리스의 높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리스 관련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카드사 포함 71개 여신전문회사 중 53개사가 리스업에 등록돼 있다. 자동차리스가 63.9%로 8조원 가량의 리스실행액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48.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리스의 증가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계약 내용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등의 민원도 지난 2010년 122건에서 지난해 20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자동차리스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리스사가 자동차를 매입하는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중고차 매각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현재 일정 비율로 규정된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슬라이딩)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리스 기간 중 고객이 아예 리스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김보배 기자

NH농협생명

건강·보험 한번에 챙기는 'NH종신보험 무배당' 선봬

NH농협생명은 7일 건강과 연금, 사망보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든든하게 대비하는 '하나로 준비하는 NH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의 기본 기능인 사망보장에 연금자산과 건강자산을 하나로 준비할 수 있는 '다기능 종신보험' 상품이다. 주계약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가입금액의 10%, 30%, 50% 중 선택 가능)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건강설계플랜'과 선택시점부터 사망보험금이 일정기간 매년 가입금액의 5%씩 체증되는 '상속플랜'을 제공해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장수리스크와 큰 병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성 특약도 제공한다. 우선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무)으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가족을 위한 보장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7대질병전환특약(무)으로 전환하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7대질병 발병 시 사망보험금의 50% 또는 80%를 선지급 받고, 기타 담보에 대한 진단보험금, 수술자금의 추가보장과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기본 보험료 납입이 완료됐거나 보험계약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계약에 한한다. 이 외에도 가족수입특약(무), 재해입원특약(무),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 등 사망·재해·질병보장이 가능한 다양한 선택특약을 제공한다.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고 65세까지며, 주보험 최대 가입금액은 20억원이다.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5%의 기본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원 이상 계약 시에는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한다.

/김보배 기자 bobae@

청약조건 없는 '도화', 뉴스테이 성공 이끌까

투자 수요 없는데도 5.5대 1
최근 1년 인근 평균의 2배
중복 청약신청 규모 관건

분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도화 e편한세상'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성공적인 청약 결과가 계약까지 이어질 지 주목받고 있다.

뉴스테이 1호 단지인 도화가 성공할 경우 추후 뉴스테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인천도화 뉴스테이 기업형임대 개발전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도화 뉴스테이리츠)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5일 실시한 청약 결과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청약을 실시한 블록은 5블록과 6-1블록이다. 가구수는 총 2051가구(영유아 어린이집 11가구, 특별공급 43가구 제외)로, 총 1만1258건이 접수됐다. 이는 인천시의 최근 1년간 분양주택 평균 청약률(2.6대 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 단지를 건설·공급·운영하는 대림산업 입장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산층의 전월세난 해소와 주거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뉴스테이 특성상 전매가 금지돼 투자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화 e편한세상' 견본주택 방문자들이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실제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청약 시 미달되는 건수는 많다. 지난달 부영주택이 강원도 춘천에 분양한 '춘천장학 S블록 사랑으로 부영' 공공임대의 경우 2순위까지 총 314가구 중 200여가구가 미달됐다. 지난 7월에 인천에서 청약을 실시한 서창 2 공공임대도 경쟁률은 1.55대 1에 불과했다.

최상헌 '도화 e편한세상' 분양소장은 "뉴스테이 1호 사업으로 타 사례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실수요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과 지역적인 특징을 감안하면 청약경쟁률은 긍정적"이라며 "지금도 매일 3000~4000명이 계속 견본주택을 찾고 있는 만큼 오는 11일부터 시작하는 본 계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약방식이 이번 뉴스테이의 경쟁률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청약조건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의 경우 세대내 구성원 중 만 19세가 넘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약을 원하는 세대는 성인 구성원이 복수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도화지구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는 "청약 경쟁률이 타 분양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약 세대 중에서 가족 구성원이 복수로 신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생각보다 경쟁률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같은 단지 내에 공급한 공공임대의 경우 경쟁률이 1.09대 1에 불과하다.

이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548가구(6-2블럭)다. 이 가구는 모두 59㎡ 3베이 단일 면적으로 이뤄졌다. 뉴스테이 59㎡가 4베이(일부 판상형)로 설계된 것을 빼면 기자재의 품질은 차이가 없다. 입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도 동일하다.

하지만 공공임대는 뉴스테이와 청약조건이 다르다. 공공임대의 경우 청약 조건이 무주택자와 그 구성원(만 19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화 뉴스테이는 성공적인 과정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결국 본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0월 공급 예정인 한화의 2호 뉴스테이 등 추후 사업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기흥역 더샵'의 견본주택 방문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기흥역 더샵' 닷새 만에 다 팔렸다

주거용 오피스텔 175실
1000만원 웃돈 붙기도

포스코건설은 지난 4일 '기흥역 더샵'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완판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당계약을 시작한지 5일 만이다.

경기 용인시 기흥역세권지구 3-1블록에 들어서는 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9㎡ 175실로 구성됐다.

내부 구조는 방 2개, 거실, 욕실 2개, 주방·식당 등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옛 18평형 아파트와 비슷하다. A, B타입은 안방+거실+자녀방 등 3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채광성을 높였다. C, D타입은 2면 개방형 구조로 설계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520만원(2억원대 초반)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1993년 3월 입주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의 한성2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47㎡(옛 18평형) 아파트 매매가(2억500만원)보다 저렴하다.

단지에서 도보로 분당선과 에버라인 환승역인 기흥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정자역까지 10분대에, 강남역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기흥역 더샵 분양관계자는 "기흥역세권지구에서도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평면도 소형 아파트 못지 않게 짜임새 있게 설계되다 보니 젊은 수요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좋았다"며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로열층을 중심으로 1000만원 안팎의 웃돈까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피스텔과 같이 들어서는 기흥역 더샵 아파트는 오는 8일부터 사흘간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2018년 11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당선 죽전역 1번 출구 인근(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1003-111번지)에 마련됐다.

/김형석 기자

한미글로벌, 국내 첫 日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선진국서 기술력 인정 받아

건설사업관리(CM) 업체인 한미글로벌이 일본 도조태양광 발전시설을 국내 업체 최초로 건설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31일 일본 히로시마현에 건설하는 33WM급 태양광 시설을 준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의 S-Energy와 일본의 CEF가 공동으로 설립한 Mega Solar Factory(MSF)가 발주했다. 사업 규모는 1000억원이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이 사업의 총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사업에서 한미글로벌은 CM용역 부분을 담당했다.

지난달 31일 준공된 일본 도조 태양광발전소 전경. /한미글로벌 제공

일본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체 전력 중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한다. 이는 원전 12기를 가동해야 얻을 수 있는 전력량이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한미글로벌의 기술력과 건설프로젝트 관리능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진국 시장에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글로벌은 제주도에 풍력발전시설의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했다. 현재는 이라크 화력발전사업을 비롯해 세계43개국에 진출했다.

/김형석 기자

제일건설
연말까지 전국서 4개 단지 '제일풍경채' 2525가구 공급

중견건설사인 제일건설은 이달 인천가정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제일풍경채' 아파트 총 2525가구를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이달에 공급될 예정인 '가정 4블록 제일풍경채'는 전용면적 74·84㎡, 총 900가구 규모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커넬웨이 상업시설 등 청라국제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실내수영장과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을 갖춘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인근에 조성 예정인 2만2252㎡ 규모의 수변공원과 북망산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다.

10월에는 경기도 평택에 '평택 장당동 제일풍경채 3차'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66·84㎡, 448가구 규모다. 장당초와 효명중·고, 홈플러스, 수산물유통센터 등이 인접해있다.

같은 달 전주 만성지구에 분양되는 '만성지구 C1블록 제일풍경채'는 전용면적 84, 103㎡, 총 553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만성지구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11월에는 동탄2신도시 A96블록에서 '화성 동탄2신도시 A96블록 제일풍경채 2차'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 76㎡, 총 624가구 규모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중·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단지 북측으로는 공원이 맞붙어 있다.

/김형석 기자

삼성 완제품, 해외 브랜드 파워 '주춤'

애플·샤오미 협공에 스마트폰 실적 저조
TV 부문, 中 저가 공세에 이익 확대 난항
DS부문 굳건… 세계 최대 '인텔' 턱밑 추격

삼성전자의 완제품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모양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반면 스마트폰과 TV등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7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 IM(IT모바일커뮤니케이션), CE(소비자가전) 부문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3분기에 삼성전자 IM부문과 CE부문의 영업이익은 각각 2조1000억원, 1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 2분기 IM부문은 2조7600억원, CE부문은 21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IM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분기 10.6%에서 3분기 8.2%로, CE부문은 1.9%에서 1.5%로 하락이 전망된다.

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완제품 경쟁력이 과거만 못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때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끈 스마트폰은 애플과 샤오미·화웨이 등의 협공에 시달리고 있다. TV 등은 중국 제조사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익을 확대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TV가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완제품 사업에서 많이 팔고 덜 남기는 구조가 고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익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자업계와 증권업계에서는 4분기에도 IM과 CE부문의 영업이익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사업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은 3분기에 사상 최대인 영업이익 4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DS부문은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우위와 시스템LSI 파운드리 사업의 본격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에 매출 103억6600만 달러, 시장 점유율 12.0%를 기록했다. 인텔은 같은기간 117억9700만 달러의 매출로 점유율 13.6%를 올렸다. 삼성전자와 인텔의 점유율 격차는 1.6%포인트다. 삼성전자와 인텔의 점유율 격차가 1%대로 좁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 DS부문의 영업이익은 4분기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7일 오후 서울 서초 삼성본관 앞에서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들은 삼성전자의 보상위원회 발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삼성 보상위 발족, 독단·기만적 행위"

반올림·피해자 가족 규탄
"반도체 직업병 대화 외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피해자 가족 54명이 삼성전자의 보상위원회 발족에 대해 독단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라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들은 7일 오후 서울 서초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삼성전자가 발족한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발표로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고,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소망하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사회 구성원을 우롱하고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보상위 설치를 강행해 사회적 대화와 자신들이 제안한 약속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 수는 가족대책위원회에 속한 6명을 포함해 총 217명에 달한다. 이에 반올림은 보상위원에 참여한 가족위 법률대리인이 어떻게 수많은 피해자를 대변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삼성이 직접 보상위원 4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독단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반올림 교섭단 대표 황상기(故 황유미씨 아버지)씨는 "권오현 부회장이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을 속이고 기만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반올림, 피해자 가족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해달라"고 전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삼성전자 가상현실, 베를린 삼켰다

IFA 2015

주요 명소 VR체험관 설치
전시장 안팎서 관람 효과
관람객·현지인 사로잡아

삼성전자는 지난 2일부터 독일 베를린의 주요 명소에 설치된 체험관을 통해 올해 IFA의 삼성 전시장을 가상현실로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관람객들과 현지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기어VR을 활용해 가상현실 체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객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VR체험관 운영은 전시장 밖에서도 전시를 볼 수 있도록해 IFA의 전시 공간을 베를린 전체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의 VR체험관은 베를린의 대표 쇼핑몰인 불러바드(Boulevard)와 모바일 제품 매장과 카페가 결합된 다목적 공간인 '베이스 캠프' 까페, 베를린 유명 백화점인 카데베 백화점과 베를린에 위치한 2곳의 BMW 쇼룸에 마련됐다.

삼성의 '커넥티드카' 협력 파트너인 BMW의 베를린 쇼룸에서는 기어VR을 통해 IFA 2015 전시뿐만 아니라 BMWi의 가상 드라이빙 체험 또한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의 IFA 2015를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베를린의 모바일 제품 매장과 카페가 결합된 다목적 공간인 '베이스 캠프' 카페. /삼성전자 제공

삼성의 VR체험존을 방문한 한 관람객은 "가상공간에서 전시장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이었다"며 "전시장에 가지 않고도 이미 삼성의 IFA 전시를 모두 경험한 느낌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의 VR체험관은 9월 2일부터 IFA 2015 폐막일인 9월 9일까지 운영된다. /양성운 기자 ysw@

'LG스튜디오' 美 이어 유럽 주방 넘본다

러시아·동유럽 순차 출시
프리미엄 빌트인시장 공략

LG전자가 올해 하반기 유럽 시장에 LG 스튜디오를 출시하고 빌트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 사업본부장(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LG 스튜디오를 유럽으로 확대해 프리미엄 빌트인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 스튜디오는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빌트인 패키지다.

LG전자는 유럽 빌트인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프리미엄 빌트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달 러시아, 내달 동유럽에 LG 스튜디오를 출시하고 내년에는 서유럽 주요 국가로 확대 전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독일 가전연구소, 영국 디자인연구소 등에서 현지 맞춤형 가전을 개발하고 폴란드 생산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다.

LG전자는 하반기에 지역 맞춤형 제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올해 프리미엄 세탁기 매출을 지난해 대비 20% 이상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냉장·하냉동 타입 2도어 냉장고와 더블 매직스페이스 냉장고를 앞세워 올해 냉장고 매출을 지난해 대비 20% 이상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LG전자는 주방이 작아 수납 효율성을 중시하는 유럽 소비자를 겨냥해 수납공간을 갖춘 더블 매직스페이스 냉장고를 연내에 유럽시장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임은정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브렌시스' 식약처 허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한국MSD와 함께 7일 자사의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인 브렌시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브렌시스를 오리지네이터 엔브렐 의 적응증인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축성 척추관절염과 건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약가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해당 적응증에 대한 치료제로 브렌시스의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미국 MSD본사가 체결한 마케팅 협력계약에 따라 브렌시스의 국내 상업화는 한국MSD가 담당한다. /임은정 기자

날렵해진 디자인·동급최강 마력으로 컴백

시승기

'BMW 뉴 320d'

페달 밟으니 지체없이 치고나가 제로백 7.2초 스포츠세단 이름값

BMW를 대표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인 3시리즈가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BMW는 7일 서울 마포전시장에서 뉴 3시리즈를 국내 출시했다. 뉴 3시리즈 모델은 더 날렵해진 디자인과 운전의 편의성, 효율성을 갖춘 스포츠세단이다.

이날 마포에서 경기도 양주까지 약 40km 구간을 뉴 320d를 타고 달려봤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안전벨트가 자동으로 몸에 맞게 조여졌다.

운전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3가지로 이에 맞춰 가속력과 진동, 엔진음이 상중하로 비례했다. 응답성과 가속력은 컴포트 모드로도 충분히 고속도로 주행에 무리가 없었다. 액셀레이터를 살짝만 밟아도 반응이 즉각적으로 돌아왔다.

특히 출발부터 160~180km까지 이어지는 맛이, 페달을 꾹 밟는 대로 막힘없이 나갔다.

핸들은 가볍지 않은 적당한 무게감으로 중심을 잡아줬다.

이날 도로가 막혀 200km 이상은 달리지 못했는데 성인 남성 2명이 탑승한 채 고속으로 주행해도 힘이 달리거나 흔들림 등의 불안정한 현상은 없었다.

1995cc 4기통 디젤엔진의 뉴 320d 모델은 최고출력 190마력/4000rpm, 최대토크 40.8kg·m/1750~2500rpm의 힘을 낸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이전 모델보다 0.2초 단축된 7.2초에 주파한다. 달리는 맛, 특히 밸런스 잡힌 가속력은 320d만의 가장 큰 매력이다. 정숙성 위주의 세단과 달리 전해지는 적당한 진동과 엔진음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차량 구매 시 별도의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많을 듯하다. 시승 연비는 ℓ당 10km 초반대를 찍었다.

BMW는 뉴 3시리즈를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7가지 세단과 투어링 라인업으로 출시했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가격은 △뉴 320d 4940만원 △뉴 320d x드라이브 5340만원 △뉴 320d M스포츠 패키지 5390만원 △뉴 320d 이피션트 다이내믹스 4600만원이다. 가솔린 차량은 4940만원부터 5610만원까지 사양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렉스턴W·코란도투리스모 각각 월 1000대 판매할 것"

쌍용차, 유로6 적용…대형 SUV시장 공략

"향상된 성능으로 렉스턴W와 코란도투리스모를 각각 월 1000대 판매할 목표다."

7일 경기도 가평군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 '뉴 파워 렉스턴W'(사진), '코란도투리스모' 시승행사에서 쌍용차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자신감을 나타냈다.

쌍용차 측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 중 렉스턴W의 경쟁 차종으로 현대자동차 싼타페, 기아차 쏘렌토 등을 꼽았다.

코란도투리스모는 MPV(다목적차량)으로서 기아차 카니발과 경쟁할 전망이다. 쌍용차 측은 코란도투리스모가 오프로드 성능을 가진 4륜구동 차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아차 카니발은 6월 출시된 가솔린 모델까지 합세해 8월 4132대가 판매됐다.

쌍용차는 렉스턴W·코란도투리스모에 유로6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하는 2.2ℓ 디젤 엔진을 탑재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 C·E·S클래스, GLK, 인피니티의 Q50·QX70 등에 적용된 7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했다. 벤츠 등에 장착된 E-Tronic 방식의 7단 자동변속기는 차량의 주행상태·운전자의 주행의지를 파악해 변속 패턴이 자동 변경된다.

2.2ℓ 디젤 엔진은 LET(Low-End Torque)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1400~2800rpm의 중·저속 구간에서 가속성능을 내뿜는 것이 특징이다. 최고출력은 178마력, 최대토크는 40.8kg·m이다. 렉스턴W의 연비는 2륜에서 12km/ℓ, 4륜에서 11.6km/ℓ다. 코란도투리스모의 연비는 2륜에서 11.6km/ℓ, 4륜에서 11km/ℓ다.

렉스턴W의 가격은 2818만~3876만원이다. 코란도투리스모의 가격은 2866만~2899만원이다.

/경기 가평=정용기 기자 yonggi@

현대차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심포지엄' 지원

의전·수행용 2개 차종 40대

현대차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2015 유라시아 복합물류 심포지엄'에 의전 차량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이번 심포지엄에 지원하는 차량은 ▲제네시스 ▲스타렉스 2개 차종 총 40대다. 행사 기간 각국 장관급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 등 고위 관계자들의 의전과 수행에 활용될 계획이다.

유라시아 교통물류 심포지엄(ASEM Symposium Seoul 2015 Eurasia Transport & Logistics Network)은 유라시아 복합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거대 단일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20여개국 ASEM 회원국의 교통물류 장관과 전문가, 국제기구, 국내 산·학 관계자 등 450명이 참석한다.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단절 없는 유라시아 교통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육상·항공, 해상 교통망에 대해 논의한다. 통합 유라시아 대륙의 구현을 위한 제도와 재원 마련 대책도 세울 전망이다.

/김종훈 기자 fun@

한국지엠·블랙야크

'패밀리 오토캠핑' 개최

쉐보레(Chevrolet)가 본격적인 아웃도어 시즌을 맞아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관광농원 오토캠핑장에서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쉐보레 RV 패밀리 오토캠핑'을 개최한다. 신청은 7일부터 한 달간 쉐보레 홈페이지 (http://www.chevrolet.co.kr/campaign/2015-9th-autoCamping/index.gm)에서 접수받는다.

매년 봄가을에 개최되며 올해로 9회 째를 맞이한 이번 오토캠핑은 아웃도어 매니아층 확대와 쉐보레 RV고객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총 100가족 400명을 초청,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과 풍성한 이벤트로 꾸려질 예정이다.

참가 고객들은 1박 2일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맨 손 송어잡기와 풍성한 상품이 걸린 축구 이벤트, 모형 자동차 만들기 등 다채롭고 활동적인 프로그램 및 가을 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쉐보레 콘서트와 오토캠핑 극장이 마련된다.

아울러 응모 고객 중 당첨자를 대상으로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소형 SUV 쉐보레 트랙스 디젤과 2016년형 올란도를 1박 2일간 제공하고 캠핑까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출시 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넥스트 스파크와 임팔라의 현장 시승이 펼쳐진다.

/김종훈 기자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주)이엔티아이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SKT·LGU+, 스마트홈 속도… KT는 지지부진

SKT
가전사 손잡고 시장진출 박차

LGU+
통신사 관계 없어 서비스 인기

KT
자사서비스 출시 계획만 내놔

6일 독일 베를린 IFA의 SK텔레콤 전시 부스 앞에서 조영훈 SK텔레콤 스마트홈TF장(오른쪽)과 최성호 LG전자 스마트 비즈 센터장이 스마트홈 서비스 연동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과 함께 미래 유망 산업으로 손 꼽히는 스마트홈 서비스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 2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KT만 다소 느릿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홈 사물인터넷(IoT)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가전 제조사와 플랫폼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 반면 KT는 연내 자사의 서비스 출시 계획만 내놓고 있어 경쟁사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우선 SK텔레콤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가전사와 손잡고 홈 IoT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양대 가전사 제품이 모두 연동되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련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인 IFA 2015에서 LG전자와 향후 스마트홈 서비스와 스마트 가전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K텔레콤은 이미 삼성전자와 지난 4월 IoT 분야 협력을 위한 제휴를 체결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양 가전사가 자체 보유한 클라우드 서버와 SK텔레콤 스마트홈 서버의 연동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에어컨, 세탁기, 로봇 청소기 등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공기청정기 등으로도 연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통신사와 제조사 플랫폼 연동으로 국내 IoT 가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사 중심의 얼라이언스 결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월 자사 스마트홈 서비스 상용화 후 8월 현재 30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와의 협업과는 별도로 연내 20개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30개 이상의 제품 군의 연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도 스마트홈 사업을 위해 같은 계열사로서 협업해온 LG전자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제품도 연동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내놓진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홈 스마트폰으로 가스밸브, 스위치, 플러그, 온도조절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IoT 앳 홈'을 출시해 주목받고 있다. 통신사와 상관없이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생태계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3주 만에 1만 가입자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전국 60여개 직영점과 대리점에 IoT 체험존을 만들기도 했다. 생소한 IoT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이용자의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쟁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KT는 연내 스마트홈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내걸었다. 최근 이 회사가 내놓은 IPTV 일체형 PC '올레 tv 올인원'은 기기 연동의 한 축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필재 KT 미디어사업본부장은 "올레 tv 올인원을 내놓을 때부터 IoT 서비스를 기획했는데 TV가 먼저 나온 것"이라며 "연내 스마트홈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IoT 사업부서와 LG전자 등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9월부터 가스밸브, 도어락, 열림감지센서 등 3가지 스마트홈 상품과 함께 '기가IoT홈매니저' 브랜드를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통신사의 틀을 뛰어넘어 전사적 차원에서 스마트홈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며 "LG유플러스도 통신사와 상관없이 앱을 다운받아 쓸 수 있게 해 1만 가입자를 확보한 반면 KT는 상품조차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어 고객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한전,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전신주 점용료 20억 내고 수입은 2340억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렴하게 빌린 전신주로 과도한 재임대 수익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전신주 점용료 20억원을 내고 임대·위약금으로 234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전력의 '전신주임대에 따른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413만개 전신주에서 벌어들인 기본임대료는 1661억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한전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전신주 점용료는 서울시 2억4100만원을 비롯해 인천(4700만원), 경기(2억5400만원) 등 2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한전은 전신주를 세우면서 전기공급이라는 공익사업을 세워서 점용료의 절반을 할인 받고 있다. 그러나 재임대 할 때는 경제가치를 평가받아 높은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전신주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선로 역시 한전의 알짜 수입원이다. 전신주 1개에는 통신선로 12가닥을 설치해야 하지만 한전에 승인 없이 배전 전신주에 무단으로 시설한 통신케이블에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위약금 수입으로 2012년은 397억원을 비롯해 2013년 492억원, 2014년 680억원을 벌어들였다. 올해는 6월말 현재 46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조한진 기자 hic@

태국 '트루무브-H'에 LTE 기술 전수

SKT, 네트워크 컨설팅 계약

SK텔레콤이 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태국의 LTE 부문 1위 사업자인 '트루무브-H(True Move-H)'사와 LTE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컨설팅 계약은 트루무브-H사의 컨설팅 경쟁 입찰에 SK텔레콤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성사됐다.

특히 SK텔레콤은 글로벌 이동통신사업자와 장비업체들이 참여한 경쟁에서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 컨설팅 방안을 제시해 트루무브-H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SK텔레콤과 트루무브-H사와의 LTE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계약 체결식에서 SK텔레콤의 홍현기 네트워크부문 팀장(오른쪽)과 트루사의 비차오 락퐁파이롯 그룹 COO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새로운 네트워크 컨설팅은 고객 체감품질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개선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정문경 기자

대한항공 신입 공채… 18일까지 접수

대한항공이 200여명의 2016년도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대한항공은 7~18일 채용 홈페이지(recruit.koreanair.co.kr)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

모집분야는 △일반직(일반관리, 운항관리) △기술직(항공기술, 항공우주, 시설) △전산직 등이다.

지원자격은 모집대상 전공자로 공인 영어자격을 소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건강진단 등을 거친다.

/이정필 기자 roman@

노틸러스효성, 삼성페이 ATM 서비스

효성의 금융자동화기기 전문 계열사 노틸러스효성은 7일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ATM(자동입출금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페이 출금 서비스가 가능한 ATM은 노틸러스효성이 전국 우리은행 지점 1000여 곳에 공급했다. 이번 서비스를 위해 노틸러스효성은 삼성전자·우리은행과 4개월 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사측이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력·보안 노하우에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기술과 우리은행의 운영 능력이 더해졌다는 설명이다.

노틸러스효성은 이번 삼성페이 출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핀테크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향후 전세계 주요 은행 ATM으로 삼성페이 출금 서비스를 확대하고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와 기능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용기 기자 yonggi@

홈플러스 매각 테스코 6조5000억 차익 챙겨

MBK 7조6800억원에 인수 비정규직 재계약 제외 노조 "강력 대응할 것"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에 7조6800억원(42억4000만 파운드)에 매각된다.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영국 테스코(사장 데이브 루이스)와 MBK파트너스가 7일 홍콩에서 이같은 금액에 홈플러스 그룹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테스코는 지난 1999년 4월 홈플러스 지분 100% 확보에 8113억원을 투자해 이익잉여금 1조5000억원을 제외하고 5조원대 매각 차익을 챙기게 됐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 /뉴시스

◆ 국내 최대 사모펀드 품에…매각 차익 5조원

이번 계약금은 MBK가 홈플러스 지분 100%를 매입하는 금액과 차입금 1조4000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산정된 것이다.

MBK 컨소시엄은 향후 2년 간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MBK 측은 인수 조건으로 임직원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가 우려했던 비정규직의 재계약 조건은 제외됐다.

MBK는 그간 테스코 측이 추진하던 '선 배당 지급'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합병에 따른 직원들 위로금 지급 여부도 계약서 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식양수 절차는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끝날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앞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와 캐나다공무원연금, 테마섹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홈플러스 인수전에 돌입했다. 어피너티에퀴티파트너스(AEP)-KKR 컨소시엄, 칼라일그룹과 경쟁을 벌였다.

이번 홈플러스 인수금액은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2007년 신한금융지주의 옛 LG카드 인수가격인 6조6765억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토종 사모펀드가 7조원에 달하는 거대 M&A에 성공한 것도 처음이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140개, 기업형슈퍼마켓(SSM) 375개, 편의점 327개, 홈플러스 베이커리, 물류센터, 아카데미, 홈플러스e파란재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회계연도에 매출 8조6000억원,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7880억원을 각각 올렸다.

MBK파트너스는 2005년 3월에 설립됐으며 9조5000억원 규모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이어 한국 투자금융부문 2위다. 2013년 웅진코웨이를 약 1조원에 인수 후 현재는 재매각 중이다.

◆ 노조 강력 대응

그동안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인수를 반대했던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MBK파트너스가 정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MBK파트너스가 사회적 비판여론과 직원들의 규탄,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위로금을 들먹이며 무마하려 하지만 고용안정과 분할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테스코에 대해서는 "두번 다시 한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2만5000직원과 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8일 오후 1시까지 대화와 협상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답변을 지켜볼 것이며 MBK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MBK는 홈플러스 노조에게 회유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MBK파트너스가 본입찰에 참여한 유일한 국내 사모펀드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노조 측은 MBK가 케이블통신업체 C&M의 인수에 참여했을 때 이 같은 약속을 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홈플러스 부산 아시아드점에서 비정규직 여성 4명이 해고됨에 따라 홈플러스 내부에서는 이미 비정규직을 향해 해고바람이 분 것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MBK측은 C&M 인수 참여시 해고된 노동자 109명은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지난해 12월 재고용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홈플러스 매각을 사이에 둔 노사 갈등에서 국민연금기금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MBK에 1조원 대 투자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공공성을 가져야할 국민연금이 해외자본 먹튀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불안에도 가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홈플러스, 쓰지도 않은 상표값 1200억 지급

테스코에 2년간 로열티 170억원 절세효과 누려

홈플러스가 테스코(TESCO)라는 상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음에도 테스코에 상표 사용료, 이른바 로열티 명목으로 2년간 120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170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나온 홈플러스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와 상표, 로고와 라이선스의 사용에 대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테스코에 로열티 조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17억1700만원,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84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년간 12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 홈플러스베이커리 등 계열사가 테스코에 지급한 로열티 액수까지 합하면 최근 2년간 1472억원이 홈플러스와 계열사로부터 테스코에 지급된 셈이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테스코 차이나(중국), 테스코 로투스(태국)와 같이 테스코라는 상표를 전면에 내세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어느 지점 간판에서도 테스코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백재현 의원은 "사용하지도 않은 상표의 로열티를 지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이전엔 30억원대의 로열티를 지급하다 2013년, 2014년에 갑자기 20배가량을 지급한 것은 영국 테스코가 경영악화로 사업 철수를 계획하고 자금 회수 수단으로 로열티 지급을 사용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로열티를 지급함으로써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로열티는 판매관리비 등으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김성현 기자

롯데 관광 3사, 亞 관광객 유치 총력

롯데면세점과 롯데호텔, 롯데월드어드벤처 등 롯데그룹 관광 3사 대표가 중국과 일본, 태국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펼치며 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롯데면세점은 롯데호텔, 롯데월드어드벤처와 함께 8일 중국 상해 '페닌슐라 상하이' 호텔에서 '2015 롯데 트래블 마켓 차이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어 일본(9월24~27일)과 태국(10월 2~4일)으로 건너가 현지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이하 TP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길 기자

'추석 신선식품 선물세트' 11번가(대표 서진우)는 추석을 맞아 신선식품 담당 MD들이 직접 기획한 '신선식품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11번가는 이달 23일까지 'MD기획 선물관'을 열고 11번가 MD와 현지 생산자가 공동 기획한 싱싱먹거리 32종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1번가 제공

NS홈쇼핑, 하반기 인턴사원 모집

14일까지 홈페이지 신청

NS홈쇼핑(대표 도상철)은 하반기 인턴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상품기획MD(TV·온라인·카탈로그), PD, 전략기획, 해외시장 개척, 영업기획,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서비스 기획, 모바일 서비스 기획, 컴퓨터그래픽(CG), 품질관리(QM) 등 10개 분야이다.

지원요건은 8월 졸업 혹은 내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한다. 지원서 접수는 1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인턴사원들은 총 2주에 걸친 입문교육을 마치고 현업실습을 받게 된다.

‘자연별곡’ 中 진출… 2020년 200매장 목표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은 10월과 11월 중국 상해에 자연별곡 2개 점을 연이어 오픈하고 중국 외식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자연별곡은 팔도 진미를 담은 왕의 밥상을 콘셉트로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지난해 4월 선보인 한식 뷔페 레스토랑이다.

이랜드는 국내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선보일 자연별곡 역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그대로 구현해 중국인들에게 한식 문화를 심어 줄 예정이다. 특히 신선 식재료를 제외한 전국 각지의 유명한 장류, 젓갈류, 양념 및 주요 재료들을 중국에 공수해 한국의 깊은 맛을 100% 살린다는 계획이다.

이랜드가 첫 선을 보이는 자연별곡 매장은 10월 유명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와이탄 정따 광장에 660㎡ 규모로 1호점을 오픈하고 연이어 11월에는 상해 창닝 지구에 오픈을 준비 중인 이랜드 중국 유통 매장에 2호점을 선보인다.

이랜드는 중국에 이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과 아시아 전역으로 매장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CJ ‘비비고’ 상하이 오픈… 中 사업 확대

中 최초 퀵서비스레스토랑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이 운영하는 한식 브랜드 비비고는 상하이에 중국 내 7호점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비비고 상하이점은 ‘상하이세계금융센터’(SWFC) 지하 1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100석 규모다.

비비고 상하이점의 특징은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퀵서비스레스토랑(QSR) 형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주문대에서 주문하고 직접 음식을 받아가는 형태다. 회사 측은 바쁜 직장인이 많은 상하이 상권 특성상 퀵서비스레스토랑이 가장 잘 어울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 궁중식 김치 ‘비비고 궁중 배추김치’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의 한식 브랜드 비비고가 정통 궁중 김치를 재현한 ‘비비고 궁중 배추김치’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비비고 궁중 배추김치는 조선시대 임금들의 12첩 반상에 오르던 잘 익은 젓국지(배추와 무 등을 썰어서 젓국에 버무린 배추김치)의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재현한 고급 포기김치다. 황태를 우려 만든 특제육수를 부어 익을수록 시원한 탄산미와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클라우드’ 국제주류품평회서 동상 수상

롯데주류(대표 이재혁)는 맥주 클라우드가 올해 30개국 630여개 맥주가 출품한 국제주류품평회에서 라거 카테고리 내 페일 라거 부문에 출전해 동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국제주류품평회는 맥주만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품평회로 1차 패널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맥주의 거품, 색, 맛, 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클라우드는 앞서 지난 4월 세계 3대 주류품평회 중 하나인 몽드셀렉션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KT&G·지포 콜라보레이션 ‘디스 아프리카’

KT&G가 명품라이터 지포와 콜라보레이션해 디자인한 디스 아프리카 ‘지포 한정판’ 2종을 약 한 달 동안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기존에 판매되던 ‘디스 아프리카 룰라’와 ‘디스 아프리카 몰라’의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탈 느낌의 패키지에 포효하는 사자와 코끼리를 그려 넣어 아프리카 특유의 야성미를 세련된 느낌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네파 ‘따뜻한세상’ 캠페인

사회에 감동 준 미담자 찾아 100일간 릴레이 패딩 전달

네파 ‘따뜻한 세상’ 캠페인 로고. /네파 제공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대표 박창근)가 12월까지 100일간 사회에 감동을 준 미담자 100명을 찾아 릴레이로 패딩을 전달하는 따뜻한 세상’ 캠페인을 진행한다.

네파는 7일 오전 11시 더 플라자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따뜻한 세상’ 캠페인 론칭 발표회를 개최한 뒤 1~3호로 선정된 미담자에게 패딩을 전달했다.

캠페인은 마음의 온도를 100도까지 높여 우리 사회를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자는 의미와 아웃도어가 지닌 보온성이라는 속성을 통해 따뜻한 삶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를 담아 마련했다.

소비자들이 직접 따뜻한 스토리를 찾아 캠페인 공식 사이트에 올리면 ‘따뜻한 패딩’ 선정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한 뒤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따뜻한 패딩’ 주인공을 확정하는 소비자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뜻한 패딩’ 1호는 육군 7사단 독수리연대에서 복무를 마친 주찬준 씨와 전문균 씨로 최근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처음으로 전역 연기 신청을 하고 전우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에게 감동을 줘 ‘따뜻한 패딩’ 1호로 선정됐다.

2호로 선정된 이아름별 대구파티마병원 간호사는 소아암으로 투병하는 환아들을 위해 길러온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선행을 해왔다. 장군년 성균관대 경영학과 학생은 학내 화장실 거울에 청소부 아주머니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자는 메모지를 붙여 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학가에 청소부 아주머니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켜 ‘따뜻한 패딩’ 3호로 선정됐다.

네파는 7일부터 하루에 한 사례씩 100일간 미담의 주인공들에게 ‘따뜻한 패딩’을 전달한다. 네티즌 응모 후 심사와 선정 과정 등을 거쳐 본격적인 패딩 전달은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0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네파는 캠페인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미담 사례 추천과 패딩 확정 이벤트에 소비자들이 참여할 때마다 최대 1만원의 ‘따뜻한 패딩’ 기금을 출연하며, 선정된 사람들에게 증정할 패딩 기금으로 활용한다.

네파는 이 기금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에 의해 발굴되고 확정된 ‘따뜻한 패딩’에게 우리 사회를 대신해 감사의 뜻으로 패딩을 선물한다.

신호창 위원장(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업의 사회공헌 캠페인이 많아져야 하지만 구조적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일상의 작은 선행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와 감동을 준 분들에 대해 격려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선한 일을 직접 하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마더테레사 효과’처럼 사회에 미담 사례가 더 많아져 보다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시리얼 시장’ 다시 기지개 켜나

농심 켈로그·동서식품 신제품 TV광고 선보여

농심 켈로그와 동서식품 포스트가 최근 신제품을 출시하고 대대적인 광고를 선보이며 시장 활기 불어넣기에 나섰다. 사진은 농심 켈로그 ‘리얼 그래놀라’ 광고(왼쪽)와 동서식품 ‘포스트 허니오즈’ 광고(오른쪽). /동서식품 제공

국내 시리얼 시장의 양대 축인 농심 켈로그와 동서식품 포스트가 재기를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양사는 최근 신제품을 출시하고 대대적인 광고를 선보이며 시장 활기 불어넣기에 나섰다. 시리얼 시장은 계속되는 웰빙 열풍에 지난해 동서식품의 대장균 시리얼 논란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 켈로그는 최근 ‘리얼 그래놀라’ 시리얼을 출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감각있는 요리는 물론 재미있는 입담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셰프 오세득 씨를 모델로 TV광고를 선보였다.

리얼 그래놀라는 10대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귀리를 포함해 쌀, 밀, 옥수수 등의 네 가지 곡물을 꿀에 섞어 오븐에서 구운 그래놀라가 70% 함유된 프리미엄 제품이다. 특히 사과, 딸기, 크랜베리, 바나나, 건포도 등 진짜 과일까지 함께 담아 과일의 달콤함과 곡물의 진한 고소함을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광고에서 오세득 씨는 셰프로서의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놀라를 직접 맛보고 소개하며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농심 켈로그는 체중조절용 시리얼 제품인 스페셜K의 신제품으로 ‘스페셜K 레드베리’도 출시했다. 스페셜K 레드베리는 한 끼(1회 분 40g)당 열량이 144칼로리(kcal)로 스페셜K 제품 중 가장 낮다.

동서식품도 최근 시리얼 ‘포스트 허니오즈’ 출시하고 아역배우 김소현을 광고모델로 TV 광고도 선보였다.

포스트 허니오즈는 통밀, 호밀, 옥수수, 보리, 현미 등 다섯 가지 곡물과 아카시아 벌꿀이 함유된 동그란 링 모양의 시리얼이다. 특히 이 제품은 식이섬유의 함량을 줄이지 않고도 특유의 바삭한 식감을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시리얼 시장은 웰빙 열풍에 지난해 10월 동서식품의 대장균 시리얼 파장으로 매출 하락을 면치 못했다.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시리얼 시장은 지난 2012년 2622억원 규모에서 2013년 240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184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2000억원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리얼 파장이 1년 여가 지나면서 동서식품과 농심이 침체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제품과 광고를 선보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소송이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을왕리~무의도, 공항철도로 원스톱 여행

왕산·실미도 등 관광지 즐비
주말 서해바다열차 이용가능
용유지역 가을바다여행 일품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로 MT나 여행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을왕리, 왕산, 무의도 등 바다여행 명소가 많은데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가 있어 언제든 쉽게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역 도착후 공항 3층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을왕리, 무의도 등 해변과 섬 여행지로 쉽게 갈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 용유임시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서해바다열차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바다여행을 즐길수 있다. 좋은 계절을 맞아 친구, 연인과 함께 용유지역 바다여행지로 추억 여행을 떠나보자.

◆ 을왕리·왕산·선녀바위 해변

용유도 지역의 대표적인 해변이다. 일찍부터 관광지로 조성돼 식당, 숙박, 카페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있다. 사계절 사람들로 붐비며 대학가나 직장인 등의 MT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다. 해변 길이가 약 700m에 달하고 주변에 송림과 기암괴석이 있어 경관이 아름답고 해안 산책로도 조성돼 있다.

을왕리에서 도보 10여분 거리로 가까운 왕산해변은 을왕리의 두배에 달할 정도로 긴 백사장을 자랑한다. 특히 이곳 일몰은 용유8경의 제1경에 꼽힐 정도라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다.

선녀바위해변은 을왕리에서 도보로 20여분 거리에 있다. 기암과 갯바위가 많아 동해안 같은 분위기다. 최근들어 캠핑족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 곳은 숙박시설도 많이 들어서 대학가 MT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기도하는 여인 형상의 선녀바위 주변의 작고 아담한 해변이 아름다워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이어 '야왕' '금나와라 뚝딱!' 등 다수의 드라마가 촬영됐다.

◆ 무의도·실미도·소무의도

무의도에는 하나개와 실미 등 두개의 해변이 있고 실미도와 소무의도 등 '섬속의 섬'이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 5분여 동안 배를 타고 무의도에 도착하면 마을버스를 이용해 하나개나 실미해변으로 갈수 있다. 하나개 해변에는 칼잡이 오수정, 천국의 계단 등 드라마촬영 세트장도 남아있으며, 짚라인 등 레포츠 시설도 있다.

실미해변은 영화 '실미도'와 실제 실미도 사건이 발생한 실미도 바로 앞에 있으며 백사장이 넓고 깨끗해 단체 행사를 하기에 좋다. 특히 해변앞 실미도는 하루 1~2차례 썰물 때 바닷길이 드러나 실미해변에서 걸어서 오갈수 있어 무인도 트레킹을 즐길수 있다.

무의도와 414m 다리로 이어진 소무의도는 섬을 한바퀴 트레킹할 수 있는 무의바다 누리길이 있고, 몽여와 명사의 해변 등 작은 해변이 두 곳 있어 소규모 모임이나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추천할만 하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용유바다 가는길
인천공항역 도착후 공항3층 정류장에서 버스 이용.
을왕리, 선녀바위 해변은 2번 승강장에서 306번, 무의도·실미도는 7번 승강장에서 222, 2-1번 버스 → 잠진도선착장.
주말과 공휴일은 서해바다열차(12월27일까지 운행, 추석연휴 제외)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무의도·실미도는 용유임시역~도보 15분~잠진도 선착장~무의도, 을왕리와 선녀바위는 용유임시역앞에서 306번 이용시 10여분 소요. 자세한 서해바다열차 운행시간표는 공항철도 홈페이지 참조.

관광公, 최대 무슬림 관광시장서 한국 홍보

말레이시아 여행박람회 참가
1233개 부스 역대 최대 규모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MATTA(Malaysian Association of Tour & Travel Agents) 여행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했다.

MATTA는 1233개 부스에 200여개 기관·업체가 참가하고 약 1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말레이시아 최대 여행 박람회이다.

메르스로 침체된 말레이시아 방한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55개 지자체, 기관, 업계와 공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4개 부스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공사는 스키, 지방관광 등 홍보활동과 한류 이벤트 등을 통해 한국을 해외여행 주요 목적지로 재인식시키는데 주력했다.

한국관은 '스키존', '지자체' 공간으로 구성하고, 겨울과 가을을 테마로 했다. 특히 스키존에는 지금껏 MATTA 박람회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스키슬로프를 설치해 관람객이 한국에서의 스키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와 경기도 소재 9개 스키리조트가 참가해 방한 스키관광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서울, 제주, 강원 등 8개 지자체가 참가해 의료관광, 제주자가운전, 겨울축제 등을 홍보했다. 이 외에도 미용, 공연관광, 테마파크 등 다양한 한국의 매력을 소개했다.

/최치선 기자

엄마와 딸이 읽는 여성건강백서

이화의료원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실용·구체적 의학조언 담아

여성 건강을 선도해 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 김승철)이 여성건강백서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사진)를 발간했다.

이 책은 이화여대 의료원이 자랑하는 각 분야 전문의 21명이 공동 집필에 참여,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조언을 담았다. 100세 시대를 맞아 중년 이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꾸몄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지만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에 걸쳐 각종 질병에 노출돼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 따라서 우울감, 화병 등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등 노년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여성 건강의 특성을 고려해 여성 4대 암부터 골반장기 탈출증이나 폐경, 화병 같은 여성들만의 질환,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와 섹스에 관한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노안과 백내장, 관절염, 치매, 수면건강, 임플란트 등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김승철 의료원장은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는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이화여대 의료원이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담았다"면서 "이 책이 믿을 수 있는 여성 전문 건강 도서로, 여성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휴대성 UP… 미니 우엉차 나왔다

롯데칠성음료

'초가을 우엉차' 350㎖ 출시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우엉차 인기에 힘입어 소용량 제품인 '잘빠진하루 초가을우엉차' 350㎖ 페트를 7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지난 4월 출시한 500㎖ 페트보다 용량을 줄여 휴대성과 음용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물처럼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제로 칼로리(0㎉) 차음료이며 식이섬유 700㎎을 함유했다.

초가을 우엉차는 다이어트나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로 최근 여성들 사이에 주목 받고 있는 뿌리채소 '우엉'을 원료로 한 차음료다.

경상남도 진주 등지에서 재배한 100% 국산 우엉을 겉껍질까지 통째로 우려내 우엉 본연의 깊고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이섬유, 사포닌, 칼슘 등이 풍부한 우엉차는 구수한 맛으로 질리지 않고 물처럼 편하게 마실 수 있어 차음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star bag

큐브엔터와 결별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나왔다. 비는 7일 자신의 SNS에 "아버지 같은 (큐브엔터테인먼트) 홍승성 회장님과 오랜 상의 끝에 서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3년 만의 국내 콘서트

배우 **장근석**이 3년 만에 국내 단독 콘서트를 마쳤다. 장근석은 지난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장근석 라이브 인 서울 2015'를 개최했다. 국내 팬을 비롯해 일본·중국·브라질·스위스 등 해외 팬이 공연장을 찾았다.

이선균 라이벌 변신

배우 **김고은**이 영화 '성난 변호사'에서 이선균의 라이벌로 활약한다. '성난 변호사'는 용의자만 있을 뿐 시체도 증거도 없는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김고은은 검사 역으로 출연한다. 다음달 8일 개봉 예정이다.

일상 담은 에세이

가수 겸 프로듀서 **조규찬**이 에세이 '거리에서, 문득'을 7일 출간했다. 인간 조규찬의 진솔한 내면과 생각에 초점을 맞췄다. 살면서 있을 법한 소소한 이야기, 친구와 커피 한잔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

BIFF 개막식 사회

배우 **송강호**, 아프가니스탄 여배우 **마리나 골바하리**가 다음달 1일 열리는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선정됐다. 영화제 측은 "아시아 전역의 좋은 영화, 영화인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회자 선정은 의미 있는 행보"라고 전했다.

멈추지 않는 연기 원동력은 '고집'

드라마 '별이 되어 빛나리' 고원희

고원희(22)라는 이름은 아직 대중들에게 낯설다. 스스로도 "아직 못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고 말한다. 이제 막 연기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신인이기 때문이다. 데뷔는 수월했다. 스타의 등용문이라는 항공사 모델로 각광을 받았다. 깨끗한 이미지 덕분에 많은 광고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연기에 대한 갈증만 더 커졌다. 그런 갈증이 데뷔 5년만에 영화, 드라마 등에서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됐다. 꾸준히 쌓은 연기 경험 덕분에 '별이 되어 빛나리'에서 생애 처음으로 장편 드라마 주연으로 발탁됐다.

"너무 좋지만 그만큼 부담도 많이 돼요. 하지만 자신 있어요. 다른 선배님들이 인터뷰나 방송에서 식당 같은 데 가면 알아보고 서비스도 많이 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별이 되어 빛나리'를 통해 세상의 어머니들께 사랑 받을 수 있는 연기를 할 거예요.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큰 도전이지만 재미있을 거예요."

연기자의 꿈을 품은 고원희는 차근차근 자신의 목표를 이뤘다. 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합격했다. 오디션을 통해 한 작품씩 경력도 쌓였다. 조금씩이지만 멈추지 않았다. 고원희는 그 원동력이 고집이라고 말한다.

"고집이 센 것이 제 성격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죠. 지금은 연기를 평생 직업으로 삼는 게 꿈이에요. 나이 먹어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기왕이면 굵고 길게 가고 싶거든요."

> "중국 유학시절 연기 꿈 갖게 돼
> 항공사 모델 등 많은 광고 활동
> 오디션 통해 꾸준히 작품 참여
> 연기, 평생 직업으로 삼는게 꿈"

이제 갓 성인 연기자가 된 고원희는 어렸을 때부터 연기에 대한 꿈이 확고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국 유학을 갔었어요.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었죠. 생활 패턴도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 듣고 밥 먹고 또 수업 듣는 게 일과의 전부였죠. 컴퓨터 수업 때 한국 프로그램을 보는 게 낙이었어요. 오디션 프로가 유행하던 시기였죠. 그걸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기자가 되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았다. 광고 모델로 주목 받고 연기자로 얼굴을 알리면서 20대 초반 평범한 또래들과는 다른 생활을 해야 했다.

"내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걸 못해서 아쉬워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을 못 가진 게 가장 아쉽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궁중잔혹사'에 캐스팅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한 학기도 제대로 못 다녀요. OT나 MT도 못 갔고요. 하지만 제가 포기해야 하는 만큼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포기해야 할 게 많아질 테니 각오는 하고 있어요."

포기하는 게 많아서일까. 고원희는 그만큼 연기자로서 성공하고픈 마음이 크다.

"'나는 분명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쫓기거나 조급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데뷔한 지 5년인데 아직도 무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잘 하고 있다는 분들도 많아요. 괜한 걱정을 하는 거 같았어요. 점집에서도 잘 될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왔냐면서요."(웃음)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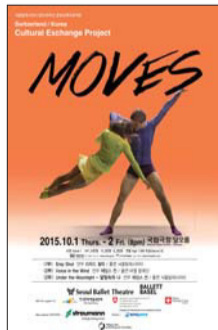
발레로 재탄생한 '동서양의 만남'

서울발레시어터·스위스 바젤발레단, 합동공연 '무브즈' 개최

서울발레시어터와 스위스의 바젤발레단은 다음달 1일과 2일 오후 8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합동공연 '무브즈(MOVES)'를 선보인다.

서울발레시어터 창단 20주년 기념 문화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위스 바젤발레단과 공동으로 기획된 공연이다. 바젤발레단은 1995년 내한 합동공연 후 20년만의 공연이다.

공연은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바젤발레단 단장 겸 상임안무가 리차드 월락, 서울발레시어터 상임안무가 제임스 전이 각 6명의 상대발레단 무용수와 함께 창작한 3개의 단막 작품으로 구성됐다. 고전과 현대, 동서양을 넘나드는 무용수와 안무가의 특성이 돋보이는 공연이 될 전망이다.

서울발레시어터와 스위스 바젤발레단은 1995년 경기도문화예술회관초청 공연으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2년 두안무가가 마스터 클래스로 교류를 이어왔다.

'무브즈' 공연은 국내 초연 이후 2016년 봄에는 스위스 바젤극장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다.

리차드 월락은 "발레라는 틀 안에서 자유로운 변형을 즐기는 나에게 서울발레시어터 단원과의 협업은 작은 움직임에서도 영감 받기 충분할 만큼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임스 전은 "바젤발레단원의 세련된 움직임에 한국적 요소를 녹여내는 기억에 남을 작업이었다. 공동작업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킨 새로운 창작발레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극장(02-2280-4114, www.ntok.go.kr) 또는 서울발레시어터(02-3442-2637), 인터파크(1588-1555, ticket.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병호 기자 solanin@

서울시뮤지컬단

Ticket Open

9월 16일 오후2시

9월 30일 까지 예매시 30% 조기예매 특별할인

조기예매할인 예매자 중 추첨을 통해 2분께 '제주도 효도여행상품권'을 드립니다.

1983년 서울에서 시작된
그리움의 울부짖음!

Musical 서울1983

연출 _ 김덕남 | 작 _ 김태수 | 작곡 _ 송시현

고단한 삶을 살아온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
그리고, 그시절 젊은이들의 희망과 좌절의 이야기

2015.10.30-11.15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예매처 _ 세종문화티켓 www.sejongpac.or.kr 02-399-1000 |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관람료 _ VIP 110,000원 | R 90,000원 | S 70,000원 | A 50,000원 | B 30,000원 | 주최 _ (재)세종문화회관 | 제작 _ 서울시뮤지컬단,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문의 | 서울시뮤지컬단 02-399-1772~3

아버지와 아들, 그 지독한 관계에 대해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사도

영조-사도세자 이야기 '부자'관계에 중심무게

이준익 감독 뚝심있는 연출 송강호·유아인 등 열연 백미

'사도'는 캐스팅 단계부터 일찌감치 기대작으로 손꼽혔다. 송강호, 유아인이라는 두 걸출한 배우의 만남부터 그랬다. '소원'으로 연출 복귀에 성공한 이준익 감독이 자신의 장기인 사극으로 돌아왔다는 점도 영화에 대한 기대를 높게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익숙한 이야기다.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낼지 궁금했다.

그러나 영화는 시작과 동시에 그런 의문을 잊게 만든다. '사도'의 오프닝은 최근 개봉한 사극 영화들 중 가장 긴박하고 강렬하다. 다른 사극 영화처럼 역사적 배경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도 않는다. 이준익 감독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순간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이어지는 8일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영조는 왜 사도세자를 귀주에 가둘 수밖에 없었는가.' 이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도'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대답이다. 그러나 이준익 감독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에 관심을 둔다. 영화가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방식을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뒤주에 갇힌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영조(송강호)는 어릴 적 총명했던 사도세자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리고 뒤주에 갇혀 목이 마른 나머지 오줌을 받아 마시는 사도세자(유아인)는 자신의 그림으로 만든 부채를 보며 세손이 탄생한 순간을 되돌아본다. 행복했던 과거와 비극적인 현재의 대비는 영화의 비장함을 더욱 깊게 한다.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영조는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기를 바랐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면서 갈등을 빚는 두 사람의 모습은 여느 아버지, 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누군가는 뻔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공감이 가는 것은 송강호, 유아인의 열연 때문이다. 세대를 초월한 두 배우의 연기 앙상블은 '사도'의 백미다.

사실 '사도'에는 사극영화에서 흔히 기대하는 대단한 볼거리가 없다. 명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주제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뚝심 있는 연출만이 있을 뿐이다. 인물의 감정만으로 러닝타임을 끌고 가는 사극영화를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다. 이준익 감독의 새로운 대표작이 탄생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9월 16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전학생 된 NBA 공룡 센터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미국 프로농구 NBA의 전설적인 센터 샤킬 오닐이 서인천고등학교에 전학생으로 온다. 샤킬 오닐은 파이터 추성훈과 짝꿍이 돼 본격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한다. 체육 수업으로 농구를 하게 되자 농구 골대가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덩크슛을 선보이며 학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다. 카라의 한승연은 남학생 교실에 찾아와 김정훈에게 수줍게 쪽지를 건넨다. 김정훈 역시 정성스럽게 쓴 답장을 들고 승연의 교실을 찾는다.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40분

김장철을 맞아 해를 넘기고도 처리하지 못해 냉장고를 차지하고 있는 묵은지를 주제로 밥상을 차린다. 묵은지를 활용한 볶음부터 찌개, 찜, 전까지 놀라운 요리가 펼쳐진다.

◆ SBS '불타는 청춘'

오후 11시15분

기타리스트 김도균은 아침부터 깜짝 등장해 양금석을 위해 직접 준비한 자작곡 '금석송'을 기타 연주와 함께 선보인다. 노랫소리에 잠이 깬 양금석은 예상치 못한 선물에 감동한다.

◆ JTBC '내 나이가 어때서'

오후 9시

연예계 힐링의 아이콘 김제동이 스튜디오를 찾아 아이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어린이 위원단은 돌직구와 함께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홈스토리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11:55 바른말 고운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1 대 100 (재)	05:00 MBC 뉴스 05:10 특선 어부의 만찬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충전 힐링 라이프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신인류 식품관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S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재) 10:2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45 냉장고를 부탁해 (재)	05:50 나는 자연인이다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현장르포 특종세상 (재) 11: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5:00 수요미식회 (재) 06:00 명단공개(재) 06:30 집밥 백선생 (재) 06:50 오 나의 귀신님 (재) 08:0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문제적 남자 (재) 11:5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5:00 큐티 06:00 놀랍지 아니한가 (재) 06:30 그림있는 집 (재) 07:00 권은순의 리빙앤스타일 (재) 07:30 야무진 공방 (재) 08:00 디자인 매거진 룸 S2 (재) 09:00 류승주의 건물탐방 (재) 09:30 자신만만 인테리어 (재) 10:00 스타 뉴스 11:00 그림있는 집 S2 11:30 어반 레전드 (재)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2015 서울 국제 유스양궁페스타 15:55 튼튼생활체조 16:00 오늘의 경제 16:10 야생일기 (재) 16:20 TV, 책을 보다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0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재) 13:10 체인지업 도시탈출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특선다큐 <세계대전> 15:05 후토스 미니미니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VJ 특공대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TV속의 TV 13: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재) 14:05 내꺼야 폴록 (재) 14: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15:00 MBC 뉴스 15:10 꼬마돌 도도 15:40 통일전망대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불타는 청춘 (재)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프로야구 중계석 (재) 16:00 꾸러기탐구생활 스페셜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로봇 트레인	13:05 비정상회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3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4:50 두번째 스무살 (재) 16:10 두번째 스무살 (재) 17:30 명단공개 (재)	12:00 캐리비안 드림하우스 (재) 12:30 플리마켓 리폼대작전 (재) 13:00 싱글 생활백서 (재) 14:00 이색적인 이사 (재) 14:30 우리집을 살려줘 (재) 15: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15:30 적중창업 (재) 16:00 류승주의 건물탐방 (재) 16:30 내 남자의 목공 (재) 17:00 와타나베의 건물탐방 S2·3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이웃집 찰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시사기획 창 23:00 KBS 뉴스라인 23: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24:35 독립영화관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 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1 대 100 22:00 별난 며느리 23:10 우리동네 예체능 24:3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55 뮤비뱅크 2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정 22:45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SBS 뉴스토리 22:00 미세스캅 23:15 불타는 청춘 24:35 나이트라인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9:55 JTBC 뉴스룸 21:40 내 나이가 어때서 23: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4:25 라스트 (재)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21:50 휴먼다큐 사노라면 23:00 엄지의 제왕 24:40 엄지의 제왕 (재)	18:20 집밥 백선생 (재) 19:40 오 마이 갓 20:40 현장토크쇼 TAXI 21:40 집밥 백선생 23:00 막돼먹은 영애씨 14 24:20 현장토크쇼 TAXI (재)	18:00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 19:30 우리집을 살려줘 (재) 20:00 자신만만 인테리어 20:30 싱글 생활백서 21:00 야무진 공방 (재) 21:30 그림있는 집 S2 (재) 22:30 Boy's Toys (재) 23:00 이색적인 이사 (재) 24:00 캐리비안 드림하우스 (재) 24:30 DIY 프로젝트 (재)

레바논전, 손흥민 빈자리 누가 채울까

오늘 월드컵예선 3차전 격돌
석현준, 최전방 공격수 예상
구자철·이청용 등 활약 기대

6일 오후(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무니시팔 스타디움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지시에 따라 훈련하고 있다. 대표팀은 8일 밤 11시(한국시간) 레바논 시돈의 시립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원정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 대표팀이 레바논과의 격전을 앞두고 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어떤 라인업 변화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 대표팀은 8일 오후 11시(한국시간) 레바논 남부도시 시돈에서 2018년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3차전 레바논과 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3일 라오스전과 비교해 베스트11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라오스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달성한 손흥민(토트넘)이 최근 토트넘 이적에 따른 업무 편의를 배려해 레바논 원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신 라오스와 경기 때 결장했던 미드필더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과 박주호(도르트문트)가 새롭게 합류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1월 호주 아시안컵 당시 1차전 오만과 2차전 쿠웨이트전 선발 선수 명단을 무려 8명이나 바꿨다. 지난달 동아시안컵에서도 1, 2차전 선발 선수 명단을 8명 다르게 짠 경험이 있다.

그는 5일 베이루트 공항에서 레바논 입국 인터뷰를 통해 "아시안컵과 동아시안컵 때 1, 2차전 선발 선수 명단에 큰 변화를 줬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로 큰 폭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빠지고 구자철, 박주호가 들어간 만큼 5명 안팎의 선발 명단 변화가 예상된다.

슈틸리케 감독은 라오스전에서는 공격에 중점을 둔 4-1-4-1 대형을 구사했다. 레바논은 라오스보다 한 수 위의 상대로 평가된다. 슈틸리케 감독이 평소 즐겨 쓰는 4-2-3-1 포메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최전방 공격수에는 라오스전에 선발로 나왔던 석현준(비토리아FC)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선 공격진에는 이재성(전북)과 구자철,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의 출전이 유력하다.

미드필더 자리에는 기성용(스완지시티)-박주호 조합이 다시 호흡을 맞출 전망이다. 수비 라인은 왼쪽부터 홍철(수원), 김기희(전북), 곽태휘(알 힐랄), 장현수(광저우 푸리)가 가능성이 있다. 골키퍼는 라오스전 선발 권순태(전북)와 벤치를 지켰던 김승규(울산)의 치열한 주전 경쟁이 예상된다.

최근 대표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권창훈(수원)과 공격 자원인 황의조(성남), 미드필더 요원 김승대(포항)와 김민우(사간 도스), 수비에 김진수(호펜하임) 등도 선발로 나오거나 교체 요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큰 선수들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프로야구, 역대 최다 관중 기록 도전

추석즈음 715만명 돌파 기대

한국 프로야구가 역대 최다 관중 기록에 도전한다.

2015 KBO리그는 615경기를 치른 7일 현재 총 627만2188명을 동원했다.

KBO는 이르면 추석 즈음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은 2012년 달성한 715만명이다.

올 시즌 시작 전 KBO의 목표는 사상 첫 800만 관중 동원이었다. KT 위즈가 새롭게 가세해 10개 구단 체제를 완성했고 전체 경기 수도 532경기에서 720경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막 이후 매달 평균 관중이 증가하며 흥행에 가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6월 평균 관객 수는 전월 대비 4000명 이상 감소한 8250명으로 떨어지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800만 관중 돌파는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7월 들어 평균 관중 9329명으로 회복했고 8월에는 다시 1만명(1만589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흥행의 중심에는 한화 이글스가 있다. 한화는 지난해보다 24%나 늘어난 57만5936명을 동원했다. 구단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은 이미 경신했다.

신생 팀 KT도 선전했다. KT는 2013년 NC 다이노스가 달성한 신생팀 최다 관중 기록(52만8739명)을 새롭게 썼다. 7일 현재까지 KT는 57만3337명을 동원했다. /장병호 기자

추신수, 3경기 연속 안타

강정호, 교체출전해 9회 병살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원정 경기에 2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타율은 시즌 최고인 0.253을 유지했다.

추신수는 6회 선두타자로 나서 볼넷을 골라 이날 첫 출루에 성공했다. 8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마이크 모린의 시속 117㎞ 체인지업을 공략해 빗맞은 타구가 3루수 앞으로 느리게 굴러가는 행운이 겹쳐 내야안타를 만들어냈다.

텍사스는 단 2안타만 쳐내는 부진 속에 에인절스에 0-7로 완패했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같은 날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대수비로 교체 출전해 병살타로 물러났다. 타율은 0.287에서 0.286(384타수 110안타)으로 조금 떨어졌다.

강정호는 8회말 수비 때 3루수 라미레스를 대신해 투입됐다. 7-0으로 앞선 9회초 1사 1루에 나선 첫 타석에서 세인트루이스 우완 구원 투수 미치 해리스의 시속 88마일(142㎞)짜리 초구 커터를 받아쳤지만 땅볼이 유격수 정면을 향하면서 6-4-3 병살타로 물러났다.

피츠버그는 7-1로 승리해 전날 패배를 설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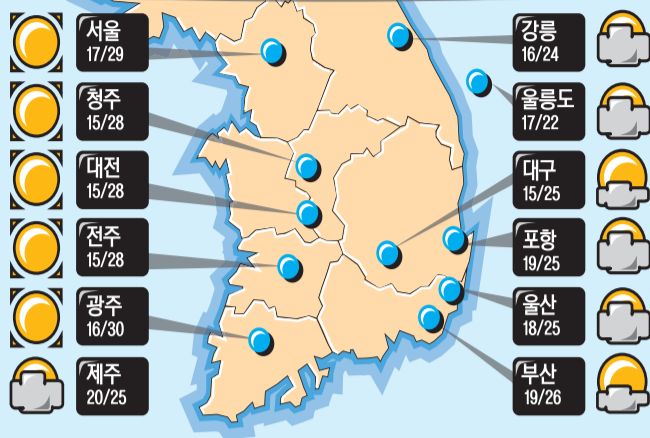
/하희철 기자 hhc@

네덜란드, 유로 2016 예선 탈락 위기

7일(한국시간) 열린 유로 2016 예선 A조 8차전에서 네덜란드의 자이로 리에데왈드(왼쪽)가 터키의 오구잔 오자큽과 볼경합을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네덜란드가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예선에서 터키에 패해 본선 진출 탈락 위기에 몰렸다.

네덜란드는 7일(한국시간) 터키 아타투르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 2016 예선 A조 8차전에서 터키에 0-3으로 완패했다.

이로써 3승1무4패(승점 9)를 기록한 네덜란드는 조4위로 처지면서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A조에서는 아이슬란드와 체코가 승점 19점으로 남은 두 경기에 상관없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터키와 남은 3위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됐다. 단 2경기만을 남기고 있어 여의치 않다. /하희철 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8				
6	9	7	2		3			
3			5	6			9	
			8			6		9
8		2			4			
	5			4	1			7
			6		8	3	2	4
				3		9		

		8			4	2		6
					7			
		7	6					
	2	4		9				5
	5	9		7		3	4	
1				8		9	2	
					2	8		
			1					
2		6	9			4		

스도쿠 정답

1	2	5	4	8	9	7	3	6
6	9	7	2	1	3	4	8	5
3	4	8	5	6	7	1	9	2
7	3	4	8	2	5	6	1	9
5	1	9	3	7	6	2	4	8
8	6	2	1	9	4	5	7	3
2	5	3	9	4	1	8	6	7
9	7	1	6	5	8	3	2	4
4	8	6	7	3	2	9	5	1

3	9	8	5	1	4	2	7	6
6	1	2	8	3	7	5	9	4
5	4	7	6	2	9	1	3	8
7	2	4	3	9	1	6	8	5
8	5	9	2	7	6	3	4	1
1	6	3	4	8	5	9	2	7
4	3	1	7	6	2	8	5	9
9	8	5	1	4	3	7	6	2
2	7	6	9	5	8	4	1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t's a foot in the doo

A: I heard the news about your interview with S Company! Congratulations!!!
B: Oh. It's not that big a deal…
A: Not that big a deal? This is huge! It's so hard to pass their initial tests!
B: Yes, but it's still only an interview.
A: It's a foot in the door.
B: Yeah… I guess.
A: You don't sound very excited.
B: It's just a lot of pressure. Plus my exams are coming. I'll be happy when all this is over with.
A: Everything will be fine. I'll tell you what. if you pass the interview, I'll buy you dinner.
B: Just dinner?
A: Drinks too!
B: Sounds good to me. I'm going to go prep are for it now then.
A: Good luck!

그 분야에 한 발 들여놓은 거야

A: S사하고 면접 본단 소식 들었어. 축하해!!!
B: 아. 그게 뭐 대수라고.
A: 별 거 아니라고? 대단한 거지! 1차 시험 통과가 얼마나 어려운데.
B: 응. 그래도 그냥 면접일 뿐이야.
A: **그건 그 분야에 한 발 들여놓은 거야.**
B: 어… 그렇겠지.
A: 어째 시큰둥하게 들린다?
B: 걍 부담감 땜에 그래. 게다가 시험도 곧 있고. 이 모든 게 끝나야 살거 같아.
A: 잘될 거야. 있지, 면접 통과하면 내가 저녁 살게.
B: 저녁만?
A: 술도!
B: 좋아. 그럼 이제 준비하러 가야겠다.
A: 행운을 빈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퇴출 3개월… 인생후반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3년 뒤 운세 회복… 종교와 관련된 직업 인연

참모장 남자 58년 6월 20일 양력 18시

Q 메트로 신문이 창동 지하철역에 놓여 있어서 자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생님 사주 속으로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고민을 해소 해주시니 불교에서 말하는 지식 보시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58년생인 저는 소기업에서 총무부 일을 맡아 오다가 사장 처남이 들어와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만 두게 되었는데 집에 마누라에게는 회사를 그만 두었다는 소리를 못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말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여 인생 말년을 가장으로서, 떳떳한 남편으로서 지낼 수 있는지를 부탁드립니다.

A 제비가 날아갈 즈음에 기러기는 떠나는데 사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사이가 두텁지 않고 거리가 있어서 서먹서먹한 관계를 두고 연안대비(燕雁代飛)라 합니다.
대운에서 갑자(甲子)대운의 자(子)를 제비로 보고 2015년 을미년(乙未年)의 미(未) 즉 기러기는 서로 반대의 입장이 되어 만나지 못하니 이를 한탄한다는 운세입니다. 이것이 곧 자미(子未)요 원진(怨嗔)의 관계가 됩니다.
이 두 글자에 해당되는 해설은 도모하는 일이 항상 어긋난다. 제비가 기러기를 만나면 묘지(墓地)에 들고 기러기가 제비를 만나면 절지(絶地)에 들어 되는 일이 없게 되니 불상사가 따르게 됩니다.
회사를 나와서 3개월 동안 집에는 알리지도 못하고 지내온 그동안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는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우직하고 고집이 있으며 신용과 의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데 직장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동안 소기업에서 일 할 수 있는 운이 지금은 다 소진되어 퇴출을 당한 것입니다.
근심과 원망의 기운이 서려있는데 원망심을 버리고 발전을 위한 생각만 하십시오. 처궁에 백호살(白虎殺)이 있으니 육친의 혈광사(血光死)를 언급할 만큼 흉함을 의미하므로 부부사이에 나쁜 일이 암시 되고 암합(暗合)되어 탈재(奪財)를 뜻하므로 사업에 손을 대다가 실패 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자격증에 도전하고 3년 정도 지나면 운세가 회복되니 그때 무엇을 할 것 인가 찾아보십시오.
12신살(神殺)을 인용하면 화개(華蓋), 월살(月殺)이 있어서 종교와 관계가 되는 사주구조인데 종교와 관계된 직업과 인연이 되므로 종교서적이나 용품을 취급하는 직장도 노크를 해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8일 (음 7월 26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합니다. **60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미루세요. **72년생**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84년생**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49년생 내일은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61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세요. **73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룰 것입니다. **85년생** 달빛이 하늘에 훤하니 하늘과 땅이 다같이 훤합니다.

50년생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작은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62년생** 바라는 바는 이루어집니다. **74년생** 동서남북이 모두 길방입니다. **86년생** 침착성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51년생 바라는 것을 너무 이루려고 애쓰지 마세요. **63년생**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원하는대로 추진해 나가세요. **75년생** 일을 확장하려 하지 마세요. **87년생** 여색을 조심하세요.

52년생 일찍 귀가함이 좋겠습니다. **64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만사 해결 됩니다. **76년생** 소원이 너무 원대합니다. **88년생** 지금은 운대가 약합니다.

53년생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65년생** 목표를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발전이 있습니다. **77년생** 욕심을 버리고 그동안의 일을 정리할 때 입니다. **89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54년생 실타래가 얽혀 풀기가 어렵습니다. **66년생** 마음이 심란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78년생** 재물이 생기지 않으면 슬하에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90년생** 방황을 하던 중 윗사람이 돕습니다

55년생 외출은 삼가세요. **67년생** 마음을 굳게 다지세요. **79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91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서둘러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56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이루어집니다. **68년생** 다툼을 하려거든 내일로 미루세요. **80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92년생** 쌍방이 만족할만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57년생 순탄하게 흘러갈 것 입니다. **69년생** 신용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81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곧 호전됩니다. **93년생**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58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70년생** 따질만한 일이 아닙니다. **82년생** 비굴함은 패함보다 못합니다. **94년생** 파트너를 돌보아 주세요. 정이 돈독해 집니다.

59년생 망망대해에 첩첩산중입니다. **71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3년생**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95년생**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국제거래에서 국가의 역할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한국의 A사는 중국 기업인 M사에 제품 수출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M사 내부에서는 A사의 경쟁 상대인 일본 회사 제품을 수입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M사는 한국의 A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가격협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북한의 지뢰도발을 시작으로 한국의 정세가 불안해졌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M사 경영진 내부에서는 '그것 봐라. 한국기업은 안정적인 거래선이 될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 혹시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A사와의 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가격협상을 하고 있던 A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A사 제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A사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것도 아니었다.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국의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핑계로 내세운 것이었다. 문제는 A사로서는 이 부분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수많은 도전과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이 도전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며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 외에도 국제거래를 하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국가의 신뢰도 문제이다.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국 기업의 제품이 좋다고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외국기업은 한국기업이 안정적인 제품의 공급처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신뢰도 못지않게 국가의 신뢰도도 중요하다. 상대방 기업은 한국기업과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A사의 사례처럼 거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A사가 당황스러워 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에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CCTV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박대통령의 중국방문을 보도하였고 중국사람들 사이에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러한 뉴스를 접한 M사 내부에서도 한국과 한국기업이 신뢰할 만하다는 점이 다시 부각되었고 일본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게 되었다.

A사 대표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한국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정부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라 하더라도 한국 기업으로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국정부가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다.

社說

'노동개혁'인가 '군사작전'인가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연일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일 해외에서 오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끝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7일 같은 주장을 했다. 두 장관이 오는 10일까지로 시한을 제시한 것은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하려는 것은 결국 '임금피크제'와 이른바 '공정해고'로 요약된다. 최 부총리는 더 나아가 이들 사안에 대해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런 의제가 과연 정부가 주장한 대로 그렇게 쉽게 결단할 문제인지 의문이다. 임금피크제와 해고 등의 근로조건은 기업으로서는 그저 비용의 일부일 뿐이지만, 노동자 개개인으로서는 생활의 전부이다. 특히 어떤 이유로든 해고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노동계는 이를 '임금삭감'과 '쉬운 해고'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해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장난에 가깝다. 그럼에도 꼭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 대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무조건 10일까지 결론내리라고 압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마치 군사작전 하는 것 같다. 노동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욱이 협상이 잘 안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까지 놓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노동계가 어떻게 대응하든 당초 계획대로 강행할 듯하다. 올해안에 국회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강행할 경우 과연 뒤탈이 없을까? 정부와 여당은 좀더 심사숙고해 보기를 당부한다.

사법시험 존폐, 문제는 그게 아니다

기자 수첩
연미란
<사회부>

사법시험 폐지 시한인 2017년이 다가오면서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한층 격해졌다. 사시 존치론자들은 로스쿨이 일부 고위층 자녀들의 취업 특혜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이는 비싼 학비, 변호사시험의 성적 비공개와 함께 불공정·불투명한 제도라는 문제점과 맞물려 있다. 반면 이들은 사시가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한다.

사시 반대론자들은 어떤가. 이들은 문제가 되는 전관유예 폐단이 사시 합격자들의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 때문이라며 사시 폐지는 사법개혁의 일환이라는 거대 담론을 펼치고 있다. 사시 합격률이 3%에 불과한 것도 이들의 공격 대상이다. 합격할 때까지 고시에 매달리게 해 이른바 '고시 낭인'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처럼 현행 사시와 로스쿨 제도는 분명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관예우와 고위층 자녀의 취업 특혜 논란이 하루걸러 뉴스를 장식할 정도다. 두 제도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피해는 '진짜' 서민층이 보고 있다. 고시 뒷바라지에, 비싼 학비에 허리가 휘는 서민층 부모들의 피땀은 일부 고위층의 특혜 되물림에 가려진 지 오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존치·폐지론자들 누구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시가 존치되면, 혹은 사시가 폐지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이분법적 발상만 내놓고 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셈이다. 여기에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면서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맞물릴 조짐까지 보인다.

문제는 사시 존폐가 아니다. 이것이 숱한 비리의 종말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밥그릇 싸움에 열중한다는 비판은 이 지점에서 나온다. 사시 존폐 갈등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 법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시 폐지와 로스쿨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생산적 논의다. 사법개혁의 시작은 법조인의 발상 전환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 사유는?

생활법률

최근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아버지 A씨를 살해하려한 가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A씨의 아내와 30대 아들, 딸은 A씨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가스분사기를 얼굴에 뿌리고 철근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다 A씨 아내의 만류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아들과 딸이 원룸 방세가 밀려 아버지 A씨에게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별도로 남편이 휘두른 둔기에 아내가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아내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던 것이다.

위 사례의 범죄자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 사유들은 무엇이 있을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이다.

이처럼 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법률상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고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결격자가 되면 민법에 결격 해제사유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다시 상속인이 되기 어렵다.

생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상속에 대한 자신의 뜻과 가치관을 알려 상속결격자나 불효자식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인 사

◇고려대 ▲대학원장 박길성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입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하동수 △과장급 파견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실 김영한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이동민 △과장급 전보 ▲녹색도시과장 김수상

부 고

▲박만봉씨 별세, 박경희·경숙·민선·선혜·준호 씨 부친상, 임동길(영구크린 이사)·이주환(한국거래소 파생상품마케팅부 팀장)·한태진(디와이 과장)씨 장인상 = 6일,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9일 오전 7시
▲손일조씨 별세, 서정호(다정한 산부인과 원장)·정환(미래에셋증권 대치지점장)·창환(특허법인 명인파트너 변리사)씨 모친상 = 7일 오전5시, 계명대 동산의료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9일 오전6시, ☎ 053-250-7144
▲이영례씨 별세, 김종재(국민연금공단 연금지급부장)·종남(과천고 연구부장)·종오(행정자치부 사무관)·종수(청암한의원 원장)씨 모친상, 이종순(농민신문 경제유통부장)·장동식(우리은행 광장동부지점장)씨 장모상 = 7일 오전 8시 30분, 전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천(天)실, 발인 9일 오전 9시. ☎ 063-250-1439
▲진일종(전 전남도청 홍보지원담당)씨 별세 = 7일 오후 1시 50분, 화순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 010-8626-5776, 010-2631-1597

부드러움이
쏟아지는
해변으로가요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